

韓服의 黃金比分析에 의한 研究

— 치마 저고리를 中心으로 —

金 榮 子

.....〈목 차〉.....	
I. 서 언	2) 부위별 변화와 황금비
II. 한복 저고리의 황금비 분석	3) 치마 저고리 착용시 황금비 관계
1. 저고리 부위간에 황금비 상관관계	III. 결 어
1) 년도별 부위간 황금비 관계	

.....〈표 목 차〉.....		
(1) 고구려복의 황금비 비례	(16) 양 장군 부인 저고리 비례	사치 분포도
(2) 1530년대 저고리 비례	(17) 송씨 저고리 비례	(31) 1800년대 저고리 황금비 근사치 분포도
(3) 순천김씨(1580)저고리	(18) 민씨 저고리 비례	(32) 1900년대 저고리 황금비 근사치 분포도
(4) 전박장군묘 저고리(1590)	(19) 18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	(33) 저고리 : 화장의 황금비 관계
(5) " "	(20) 김씨 저고리 비례	(34) 저고리 : 화장의 황금비 도표
(6) " "	(21) 송씨 저고리 비례	(35) 옆길이 : 옷길이의 황금비 관계
(7) 15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	(22) 정씨 저고리 비례	(36) 진동 : 옷길이의 황금비 관계
(8) 청주 한씨 저고리(1600)	(23) 이씨 모친 저고리 비례	(37) 진동 : 수구
(9) 상공 권씨 저고리 비례(1600년대)	(24) 야두영씨 저고리 비례	(38) 걸깃길이 : 수구
(10) 구례 손씨 저고리(1620)	(25) 이창숙씨 저고리 비례	(39) 소매통 : 진동
(11) 정경부인 저고리 비례	(26) 김씨 저고리 비례	(40) 옆길이 : 진동
(12) 16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	(27) 19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	(41) 동정 : 깃넓이
(13) 김덕원가 저고리 비례(1700)	(28) 1500년대 황금비 근사치 분포도	(42) 치마 저고리의 착용시 황금비의 상관 관계
(14) 17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	(29) 1600년대 저고리 황금비 근사치 분포도	(43) 저고리 길이와 허리선, 장지와의 황금비 상관 관계
(15) 청연군주 저고리 비례	(30) 1700년대 저고리 황금비 근사치 분포도	

1. 들어가는 말

황금분활은 고대로부터 형태의 미를 규정하는 여러 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여겨져 왔

다. 이는 주어진 대상을 이 비율로 활당하는 방법이란 뜻으로 숫자로 1 : 1.618이 되며 골든 섹션(Golden Section)이란 이름이 붙은 비례법이다.¹⁾

실지 이 비례의 적용은 서양에서부터 시작하

1) 柳 亮 저 兪吉濬역, 황금분활, 지문당, 1982, p. 11.

여 고대의 회람신전의 건축이나 조각품, 도자기 등에 이 황금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르네상스 이래의 조형 예술품에도 정밀한 황금비가 나타난다는 것이 금세기에 실측조사 연구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과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 황금분할의 관심은 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여러분야에서 디자인의 원리로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수학적 관계를 결정하는 비례미 탐구의 노력은 일종의 미의 기준에 대한 관심인 동시에 미에 대한 갈망으로 옛 것의 이론을 새로운 예술에 적용해 보려는 미의 원리의 현대적 추구라고 보겠다.

애초에 이 황금비례의 미적분할은 서양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를 느끼는 인간의 미감의 본능이 공통성을 갖고 있는 생리적인 조건에 있다고 미루어 볼 때, 동서양의 구분은 없으리라고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야나기료우(やなぎ. りょう)씨는 근년에 이 황금분할의 작도법을 일본의 회화의 구성과 건축에 시도해 본 결과 많은 예술품들이 황금비례를 이루고 있음을 연구 발표한 바 있다.²⁾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의 조형적 구성에 이 비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이일성씨가 우리나라의 도자기에 황금비의 작도법을 적용하여 발표한 바 있다.³⁾

필자는 여기서 우리의 한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고리를 중심으로 각 시대의 형태에 황금비를 찾아보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니만큼 시행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점도 있으리라고 보이나 하나의 시안으로서 일일이 한복의 각 부위를 적용시켜 봄으로서 결과를 얻어보려고 한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실물을 가능한 한 사용하려 하거니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저고리의 변화되는 형태에 따른 미의 변화 양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며 이는 지금까지 필자가 연구해온 한복의미를 찾는 다른 각도의 조명이라는 것도 밝혀둔다.

실지 서양복 디자인에서는 이 황금비례를 면

적이나 길이의 분할에 응용하거나 트리밍과 디테일, 색의 조화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다.⁴⁾ 그런데 이 분할이 한복에는 의도적으로 적용되었을리 만무하다. 특히 한복은 서양복과 달리 구성이나 장식적인 면에서 다양하지 않고 다만 시대적으로 약간의 변형이 있었을 뿐이다. 구성의 기본형은 고구려 벽화를 통하여 상고 복식을 더듬어 볼 때, 저고리가 엉덩이 정도로 내려와 오늘날의 양복 저고리와 길이가 같았던 것을 보면 이때의 상의와 하의의 구성은 황금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러 점차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까지의 平床 위주의 寢床 생활에서 온돌을 위주로 하는 坐食 生活로 이행됨에 따라 저고리가 단소화 경향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황금비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앉은 자세로 바뀔 때 따라 애초에 고구려 이래 이루던 비례미는 앉은 상태의 비례미로 이동되고 서 있을 때 저고리의 짧은 길이는 불균형의 미로 이행되어진 것같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검증은 한복이 황금분할에 대한 무의식의 상태에서 제작된 것이니만큼 다소 거리감은 있겠지만 이를 통하여 각 시대의 복식미의 기준이 황금비례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는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요즈음은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자인과 재단이 시도되고 있으니 만큼 이에 대한 분석도 미의식의 관념이나 표상적인 면과 아울러 좀 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저고리는 실물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고 아울러 실지 사람이 착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나 의복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시기는 벽화나 그림으로 대신하였다. 이런 벽화나 회화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당시의 복식비례를 어림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서있는 상태의 인체비례는 과거의 인체

2) 柳 亮 著, 속 황금분할(일본의 비례), 미술출판사, 1982, pp.4~6.

3) 이일성, 한국 전통 도자기 형태의 황금비에 의한 분석.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0.

4) Helen. L. Bro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계측의 자료가 없어서 현대인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실물은 출토품과 선학들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가능한 실물 사진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고찰방법은 모듈러(Le Modulor) 인체비의 황금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각기 저고리마다 그 범위내에서 비례를 측정하고 치수를 참고로 비례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참고로 한 자료의 치수는 정확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고찰되었음을 밝혀두고, 분석자료가 표본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제한이 있으리라고 보인다.

2. 한복 저고리의 황금비 분석

저고리는 남녀가 공통으로 입는 한복의 기본복식으로 외의(外衣)인 포의 안에 입는 의복이다. 이 저고리는 여자에게는 현재 치마와 함께 상하의 한벌로, 남자에게는 바지와 함께 한벌로 갖추어져 입는다. 이러한 차림은 우리의 복식의 시작으로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고구려시대부터 있었음을 고구려의 벽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이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같은 형태의 구성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 저고리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눈에 띄이게 변화되었던 부분은 저고리 길이로, 1530년대까지는 고구려 복식과 기장이 다를 바가 없으나 다시 16세기 후반부터 저고리가 단소화하였고 이 밖에도 특히 소매의 형태와 깃, 싹등이 변화부위였다. 여기에 회장의 유무와 동정이 생기고, 저고리가 길던 때에 허리에 두르던 띠가 길이가 짧아지면서 옷고름으로 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이와같이 한복의 기본인 저고리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형태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미를 추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미를 고찰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황금분할의 비례를 적용하여 비례미의 조화를 찾아 보려고 한다. 물론 황금비례의 미적 기준은 서양에서 시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동양권내의 우리의 의복이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제작되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비례가 일반적인 인간의 쾌감을 줄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이 여러 학자에 의해서 연구 발표된 바 있고 또한 실증적으로 증명되기에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저고리에 적용시켜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고 보며 다음에 각 시대에 따른 변화형태에 황금비례를 찾아 보려한다.

1. 저고리 부위간에 황금비 상관관계

여기서 각 시대별로 저고리의 부위를 나누어, 시각적으로 가장 미의 효과를 이루는 폭과 길이를 선정하여 대비 측정함으로써 황금비례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옮겨서 각 년대별로 비례 부위간에 수치가 얼마나 황금비에 근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으며 다시 각 부위를 분류하여 각기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비례비를 황금비와 비교 검토하였다.

1) 년도별 부위간 황금비 관계

(1) 상고·중고시대(4, 5~14, 15세기)

이 시기는 실물이 없어 그림으로 대신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자체에서 신장의 황금비선이 허리부분이 되는데 이는 현대 그림에서 인체를 분할할때 비례와 같은 것으로 의복을 착용한 모습도 실지 상태의 모습과 과히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추측한다. 전봉 높이로부터 길이를 중심으로 치마와 저고리의 관계는 황금비를 이루고 있으며 저고리 자체는 허리에서 분할된 비율이 서 있는 자세로 위와 아래가 황금비를 이룬다.

(그림 1)은 고구려의 벽화로 쌍영총의 “인물행열도”의 여인의 복장이다. 신장의 황금비례 부분은 공수한 허리쯤이 되며 여기에 저고리 띠를 매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는 쌍영총의 “차마행열도”의 여인으로 고구려의 전형적인 치마저고리 차림이다. 이 그림은 저고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와 지금의 저고리 치마와의 비례의 반대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는 당시에 정상생활로 이렇게 긴 저고리를 착용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고 보이며 치마저고리의 허리선이 황금비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체 기장과 허리선, 의복전체 길이에서 저고리와 치마의 비례, 저고리에서 위와 아래가 모두 황금비례이다.



(그림 1) 쌍영총
여인 의복의
황금비

(그림 2) 쌍영총 변화의 치
마 저고리의 황금비

<표 1> 고구려복의 황금비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신	장	10.5		1 : 1.64	
허	리 下	6.4			1 : 1.56
허	리 上	4.1			
옷	길 이	8.4		1 : 1.61	
저	고 리	5.2		1 : 1.62	
치	마	3.2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신	장	7.6		1.65	
허	리 下	4.6			1.53
허	리 上	3			

(2) 15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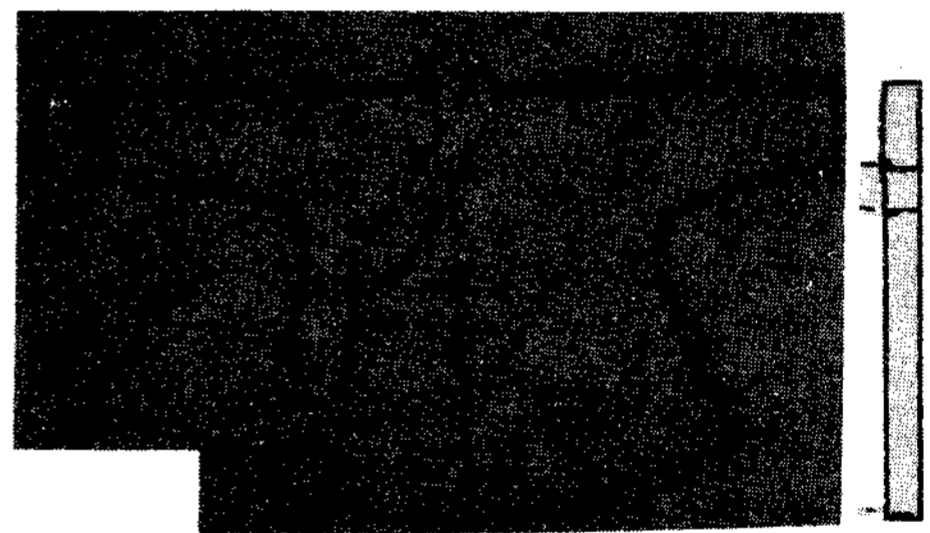
이 시기에 저고리는 고구려 시대의 저고리 형태에서 길이가 짧아지고 다른 곳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온돌생활 양식에 알맞게 변화된 현상으로, 비례미가 서 있는 모

습에서 앓은 모습의 미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보겠다.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천천히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마련인 의복생활은 시대의 문화의 유기적 존재로 다른 문화와 더불어 변화되며 영향을 끼치는 성격을 띄고 있어 이에따라 미의 계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때 저고리의 부위, 비례는 (표 7)에서와 같이 파격적인 비율은 없으며 실지의 형태도 규격적이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가장 황금비에 가까운 부위는 쇄의 위와 아래의 관계이며 다음이 깃과 동정과 의 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부분은 저고리의 정면에 위치한 곳으로 한복미의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가장 황금비에 근사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의 표현성이 장식부분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수구와 겹깃 길이의 비례와, 진동과 겹깃 길이가 유사한 비례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진동과 깃의 길이는 구성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당시에 소매는 통수의 직배래로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림 3) 1530년대(악학계법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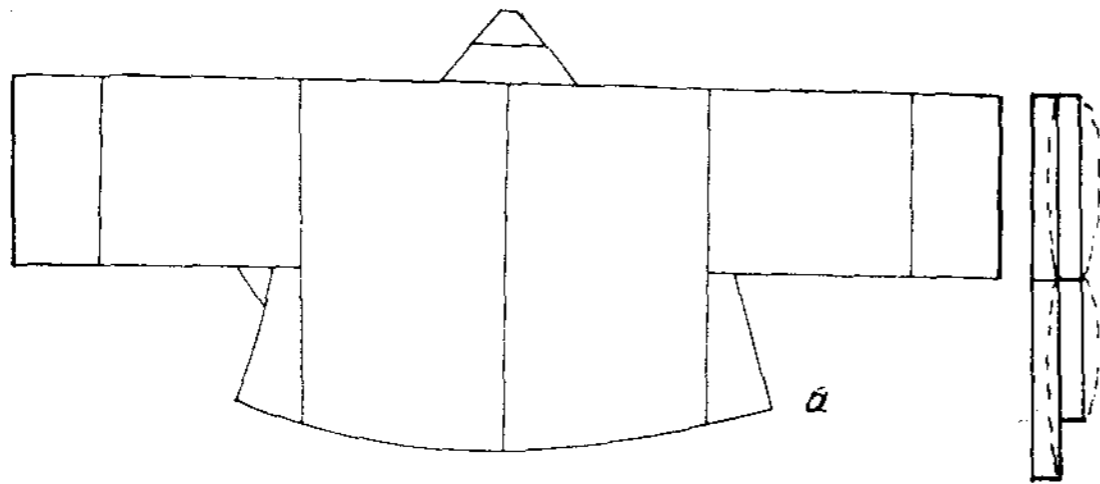
<표 2> 1530년대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3.2		1 : 2	
옆	길 이	1.6			1 : 1.6
수	구	0.6		1 : 1.6	
진	동	1			
깃	넓 이	0.3		1 : 2.6	
쇄	넓 이 上	0.8			1 : 1.25
쇄	넓 이 下	1			

☆ 그림에서 측정된 치수 비례임

이상에서와 같이 이때의 저고리는 장식적인 선이 비례미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구성선은 유사비례를 이루고 있어 형태상으로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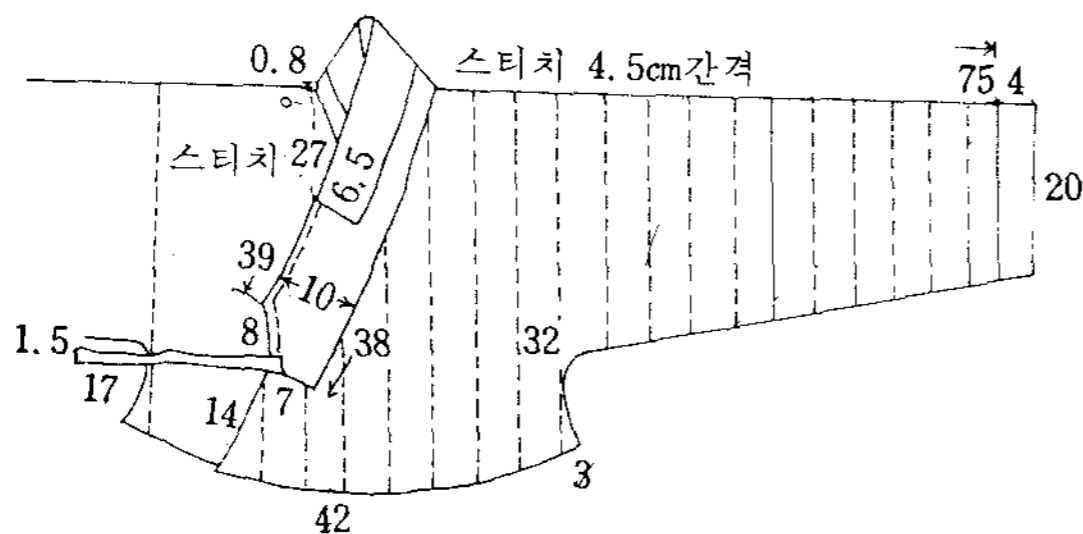


(그림 4) 順川金氏 저고리(1580)

〈표 3〉 순천김씨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저고리 길이	4.8	1 : 1.92
진 동	2.5	
깃 넓 이	1	1 : 1.66
섶 넓 이 상	0.6	
섶 넓 이 하	1	1 : 1.66
섶 길 이	1.4	
수 구	2.3	1 : 1.64
깃 길 이	3.7	1 : 1.60
소 매 통	2.3	
진 동	2.5	1 : 1.66
옆 길 이	1.5	

☆ 그림에서 측정한 치수 비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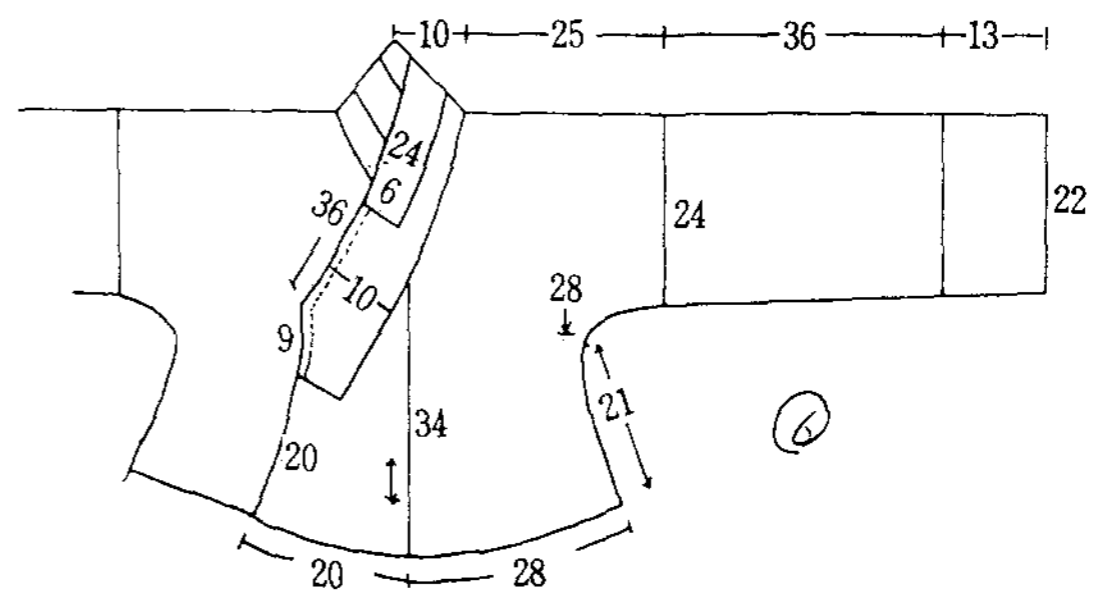


(그림 5) 傳朴將軍묘 저고리(1590)

〈표 4〉 전박장군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46	1 : 1.43
진 동	32	
수 구	20	1 : 2
깃 넓 이	10	
동 정 넓 이	6.5	1 : 1.62
끝 동 넓 이	4	
깃 길 이	38	1 : 1.87
진 동	32	

☆ 실물치수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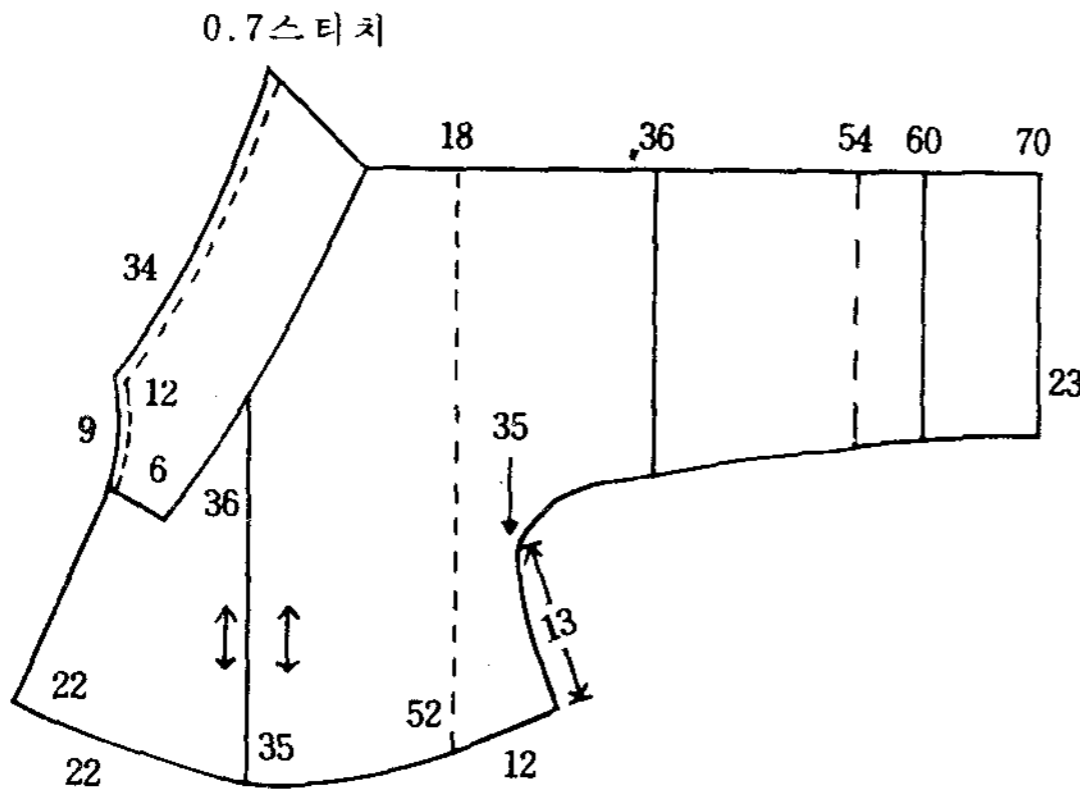


(그림 6) 傳朴將軍 赤古里(1590)

〈표 5〉 전박장군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53	1 : 2.2
진 동	24	
깃 길 이	36	1 : 1.5
소 매 통	24	
수 구	22	1 : 2
깃 넓 이	10	
동 정 넓 이	6	1 : 1.66
깃 섶 넓 이	20	
옆 길 이	21	1 : 1.05
깃 섶 길 이	20	
진 동	24	1 : 1.2

실물치수비례



(그림 7) 傳朴將軍 赤古里(1590)

〈표 6〉 전박장군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저고리 길이	53	1 : 1.96
진 동	27	
옆 길이	13	1 : 2.07
수 구	23	1 : 1.17
깃 길이	36	1 : 1.56
깃 넓이	10	1 : 3.6
결섵 길이	35	1 : 1.59
결섵 넓이	22	

실물치수비례

〈표 7〉 15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표

비례 부위	평균 비례	황금비의 차이
옆길이 : 옷길이	1 : 2.75	+1.132
진 동 : 옷길이	1 : 1.142	-0.47
수 구 : 진 동	1 : 1.256	-0.362
깃동 : 겹깃길이	1 : 1.54	-0.078
수구 : 겹깃길이	1 : 1.67	+0.01
소매통 : 진 동	1 : 1.13	-0.488
옆길이 : 진 동	1 : 1.09	-0.528
동 정 : 깃넓이	1 : 1.59	-0.028
섵위 : 섵아래넓이	1 : 1.60	-0.01
수 구 : 섵길이	1 : 1.42	-0.198

황금비례 = 1 : 1.618 ⊕

1 : 0.6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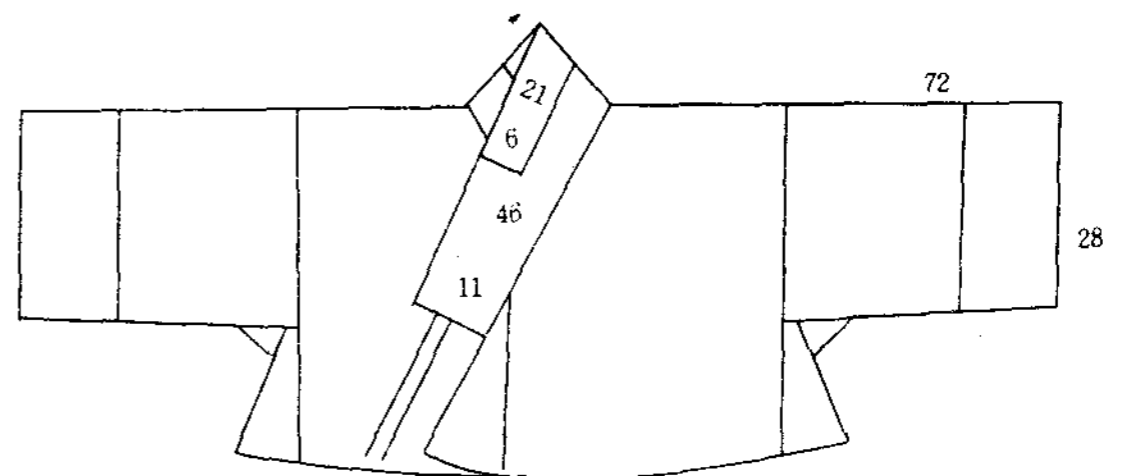
(3) 1600년대

이 시기에 저고리 형태는 전세기와 비슷하고 황금비에 가까운 부위는 겹깃 길이와 수구의 관계와, 깃넓이와 동정, 안섵과 결섵등이다. 옷길 이의 옆길이는 역시 황금비와 차이가 있으며 소매통과 진동의 비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 수소매가 계속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동과 수구, 진동과 소매통, 옆길이의 진동이 비슷한 비례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진동과 소매통, 수구, 옆길이가 비슷한 수치를 이루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저고리 역시 1500년대의 미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다만 약 간의 길이의 변화가 따랐을 뿐이다.

☆ 이하표의 치수는 실물 비례치수임.

〈표 12〉 16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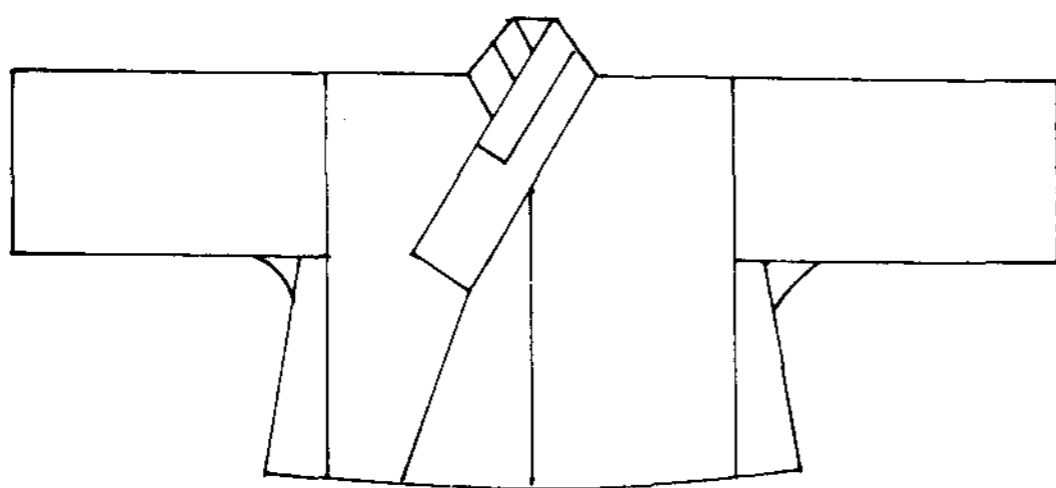
비례 부위	평균 비례	황금비의 차이
옆길이 : 옷길이	1 : 2.54	+0.924
진 동 : 옷길이	1 : 1.927	+0.309
수 구 : 진 동	1 : 1.167	-0.451
수구 : 겹깃길이	1 : 1.543	-0.074
소매통 : 진 동	1 : 1.095	-0.523
옆길이 : 진 동	1 : 1.185	-0.433
동 정 : 깃넓이	1 : 1.872	+0.254
수 구 : 섵길이	1 : 1.079	-0.539
안섵넓이 : 결섵	1 : 1.685	+0.067



(그림 8) 淸州韓氏 赤古里(1600)

〈표 8〉 청주한씨 저고리 비례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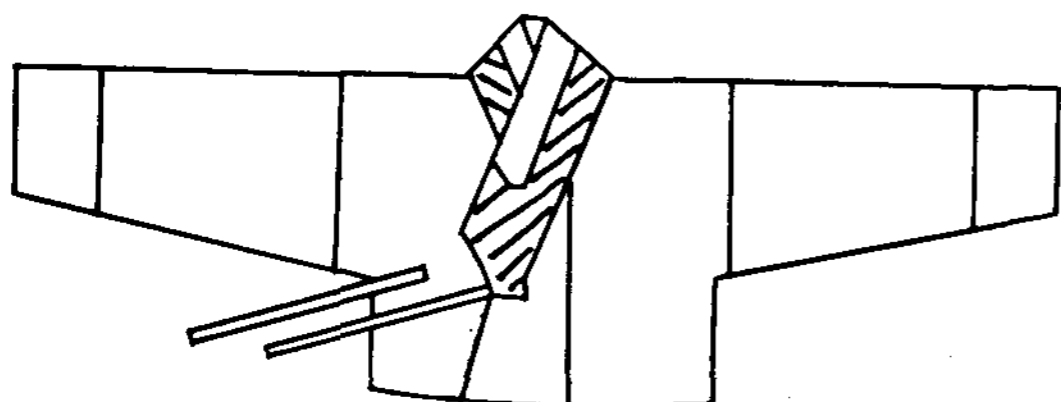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55	1 : 1.83
진 동	30	1 : 1.53
깃 길 이	46	1 : 1.07
수 구	28	1 : 2.54
깃 넓 이	11	1 : 1.83
동 정 넓 이	6	1 : 1.84
결 섹 길 이	25	1 : 1.57
결 막 이	7	



(그림 9) 尙宮 權氏 저고리(1600年代)

〈표 9〉 상궁 권씨 저고리 비례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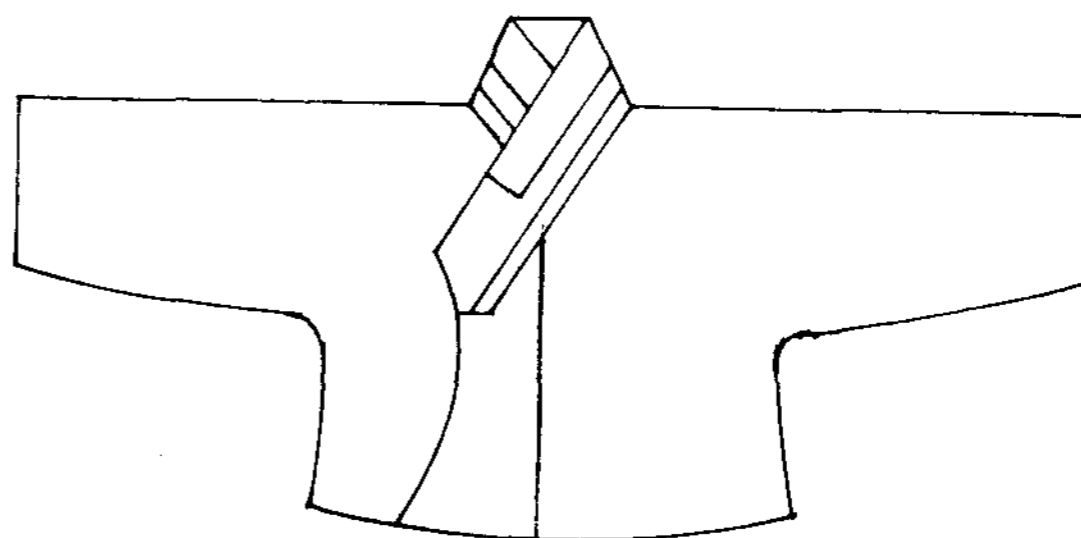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59	1 : 1.73
진 동	34	1 : 1.30
배 래	26	1 : 1.38
결 깃 길 이	36	1 : 1.38
수 구	26	1 : 1.38
결 섹 넓 이	19	1 : 1.26
안 섹 넓 이	15	1 : 1.9
깃 넓 이	10	1 : 2
동 정 넓 이	5	



(그림 10) 구례손씨 赤古里(1620)

〈표 10〉 구례손씨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저고리 길이	58	1 : 2.23
옆 길 이	26	1 : 1
진 동	26	1 : 1
소 매 통	26	1 : 1.61
결 깃 길 이	42	
깃 넓 이	10	1 : 1.66
동 정 넓 이	6	1 : 2.3
결 섹 넓 이	23	1 : 1.17
섹 길 이	27	



(그림 11) 貞敬夫人 赤古里(1670)

〈표 11〉 정경부인 저고리 비례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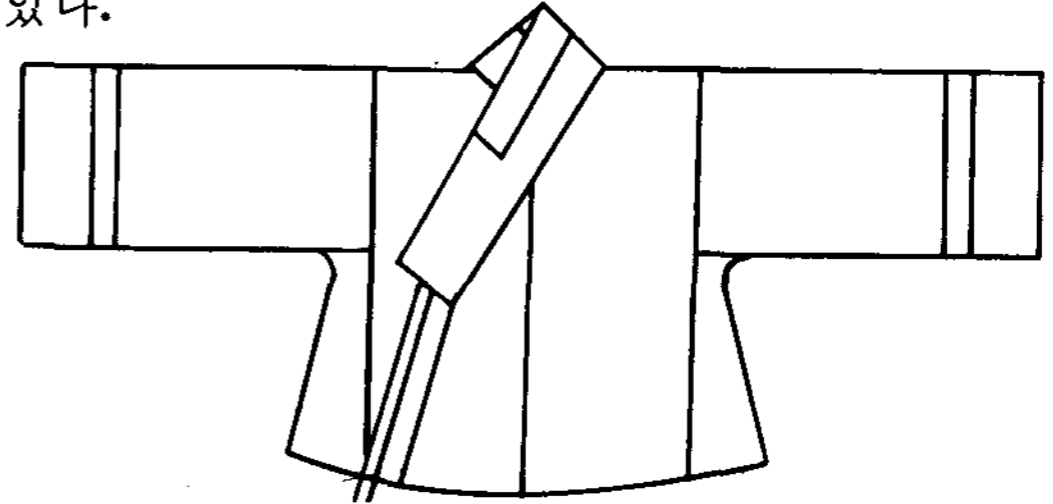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50	1 : 1.92
진 동	26	1 : 1.08
배 래	24	1 : 1.2
수 구	20	
결 섹 넓 이	19	1 : 2.11
안 섹 넓 이	9	1 : 1.9
깃 넓 이	10	1 : 2
동 정	5	

(4) 1700년대

1700년대에 이르러 미의 기준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시대에 비하여 저고리의 각 비례부위가 황금비례에 가까운 분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옷길과 옆길의 비례는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옆길이 축소되어 치수의 격차가 심

해지므로 높은 비례비를 보이고 있으나 옷길과 진동과의 관계는 황금비에 가깝다. 이는 의복 구성에서 기본이 되는 수직선으로 형태의미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다시 같은 방향의 수직 분할인 진동과 수구의 황금비 관계로 이어져 미적분활의 쾌감을 준다고 보겠다. 이렇게 옷길과 진동, 그리고 수구는 저고리에 있어서 수직의 세 트리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비례의 조화는 전체의 균형과 안정감을 주는 형으로 구성선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깃넓이와 동정이 비례미를 이루고 있으며 더우기 내부 장식미의 포인트인 깃의 집점이와 닿는 쇄의 넓이와 깃의 넓이 역시 황금비를 이루

고 있어 이를 종합해보면 이 시대의 저고리는 내부 장식선의 비례미와 외부 구성선의 미적분활로 이루어진 것으로 황금비의 보편적인 미의 가치 기준에 적합시킨다면 가장 무난한 미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저고리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金德遠家 赤古里(1700)

〈표 13〉 김덕원가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①	비 례	크 기②	비 례	크 기③	비 례
옷 길 이	43	1 : 1.79	45	1 : 1.6	42	1 : 1.75
진 동	24		28		24	
수 구	17	1 : 1.41	19.5	1 : 1.43	17	1 : 1.41
깃 넓 이	10.5		9.8		10	
동 정 넓 이	6	1 : 1.75	18.5	1 : 1.88	15.5	1 : 1.55
上 쇄 넓 이	16					
下 쇄 넓 이	13					
깃 길 이						

〈표 14〉 17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표

비 례 부 위	평 균 비 례	황금비의 차이
옆길이 : 옷길이	1 : 2.778	+1.160
진 동 : 옷길이	1 : 1.725	+0.107
수 구 : 진 동	1 : 1.397	-0.220
수구 : 겹깃길이	1 : 1.729	+0.111
소매통 : 진 동	1 : 1.177	-0.440
옆길이 : 진 동	1 : 1.101	-0.517
동 정 : 깃넓이	1 : 1.75	+0.132
쇄위 : 쇄아래넓이	1 : 1.23	-0.388
깃넓이 : 쇄넓이	1 : 1.647	+0.029

(5) 1800년대

180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까지의 저고리 형태

에 많은 변혁이 생겼다. 특히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옆길이가 극소화된 현상은 당시의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대적인 특성이 내재하여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이러한 황금분활의 분석을 통하여 구성은 같으면서도 필자가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고정선에 있어서는 신축(伸縮)의 원리에 의하여, 가변선에 있어서는 증폭(增幅)과 수축(收縮)의 원리에 의하여 한 시대도 그치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이것을 유행이라 할 때, 그 유행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근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조선사회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사회였음에도 이러한 유행은 끊임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조효순 교수가 18세기의 유행의 이유를 기생사회에서 많이 분담하였음

5) 김영자, 조선조 한복미의 선에 관한 분석적 고찰, 동양학, 동양학연구소, 1983.

을⁶⁾ 밝힌바 있는데 이는 타견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를 확정짓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일반 부녀자는 기생과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통이 불편한 당시였음에도 서울과 지방의 복식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효순 교수의 의견에 찬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유행성 가설을 제시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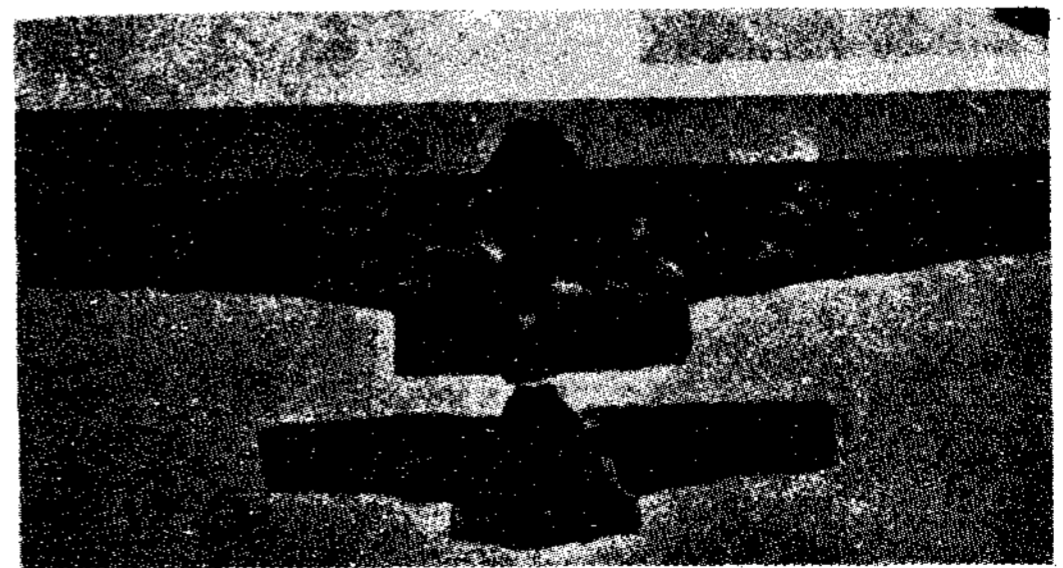
옛날에 유행을 만드는 사람은 침모(針母)였다고 생각한다. 이 침모는 궁중에서는 궁중의 상의원(尙衣院)에 소속한 기생과 내인(內人)이 있어, 궁중의 침선생활을 담당하였다. 이 내인들은 주로 서울 중앙의 우대사람 즉 중인중에서 뽑혀 올라갔다. 이 중인은 의복의 감(衣次)을 대는 선전(綰塵)과 기생방(妓生房)이 있는 다동(茶洞) 부근과 서로 이웃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조에 계속되었다. 이 중인과 상인과 침모와 기생과의 주변에서 이러한 유행의 변화는 일어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연관성에 의해 제시된 미의식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중인 사회의 미의식에서 이룩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길게 한다. 유행의 형성은 서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18세기 화가의 손에 의하여 그려진 그림의 의복이 유행을 하였던 왓도우 까운(watteau gown)이나 그 이후 근대복식에서도 오띠 꾸뛰르(haute couture)에 의해 유행이 리드되어 상류층 부인의 디자인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본다면, 비록 동서양의 사회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유행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 같은 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류층 부인의 의복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느질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추정도 가능한 것이리라고 생각한다.

1800년대 말기는 이제까지의 저고리의 전형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특히 저고리의 길이가 극도로 짧아지고 동시에 소매통이 좁아지는 현상으로 이것은 당시의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시대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표 19)에서와 같이 옷길이의 차이가 이 전시기의 비례보다도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기에 이르러는 더욱 극대화된 비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옷길이에선 진동길이를 제외하면 옆길이가 되는데 이로서 저고리가 짧았던 것도 역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좁아진 소매통에 대하여 사회문제로 거론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조선실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 짧아진 저고리의 모습은 혜원의 회화에서 부녀자와 기녀의 앞가슴이 노출되고, 치켜올린 팔 사이로 겨드랑이 보이는 모습 등에서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구와 진동의 비 겹깃길이의 수구는 여전히 황금비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소매통에서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800년 전까지 직선의 사선 배래가 후기로 가면서 곡선 배래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⁷⁾에 따르게 되는 비례비의 관계현상이다. 또한 깃넓이와 동정의 비례가 전기에 비하여 후기에 비례비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차이는 심하여 조선초기에 이루던 이 비례관계는 많이 달라졌다.

이상을 검토해 보면 이 시기의 저고리는 파격적인 비례를 이루고 있는 부위가 생겼으며 이것은 형태의 외형을 이루는 저고리 길이의 옆길이 소매통 등이다. 이는 후기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균정의미를 이루던 저고리의 비례미가 불균정의미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는 시기로 미의 계치가 달라졌으며 의복의 노출현상이 하나의 에로티즘을 내포한 미의 관점으로 용인되고 실행되어지는 것으로도 함께 풀이된다.



(그림 13) 淸衍郡主 赤古里(1800)

6) 조효순, 조선후기 여성복 사치에 관하여, 제 2회 아시아 복식 연구발표요지, 국제복식학회, 1983. pp. 10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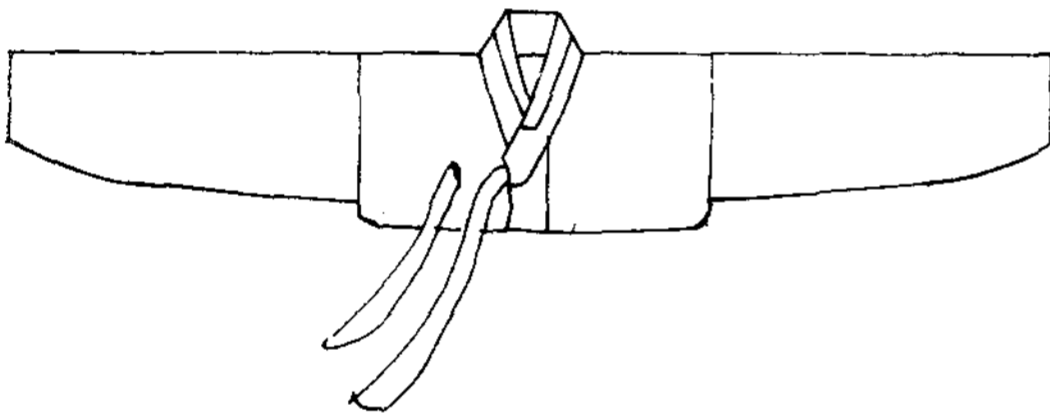
7)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updated and revised by frances kennett, p. 149.

8) 이경자, 한국 복식사론, 일지사, 1983, pp. 60~61.

〈표 15〉 청연군주 저고리 비례

(단위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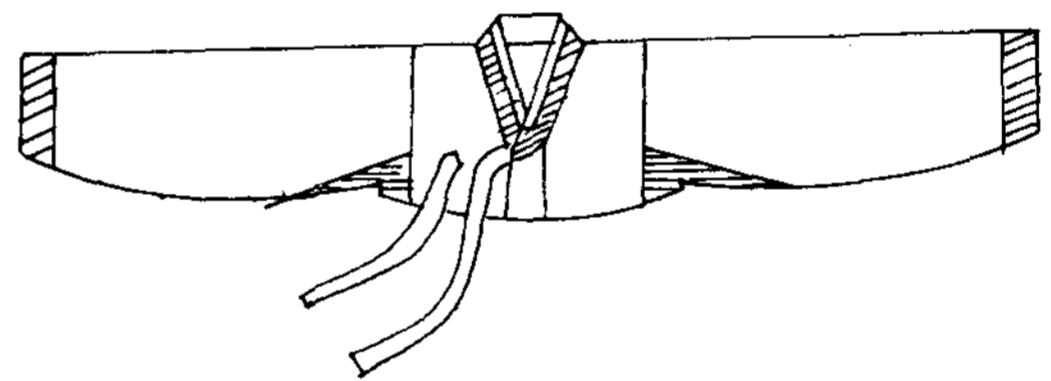
위치	비례	크기①	비례	크기②	비례	크기③	비례	크기④	비례	크기⑤	비례
옷 길이		25		25		28.5		22.5		29.5	
옆 길이		6.2	1 : 1.35	6.5	1 : 1.42	6.0	1 : 1.26	7.5	1 : 1.32	5.8	1 : 1.31
진 동		18.5	1 : 2.9	17.5	1 : 2.0	22.5	1 : 3.75	17.0	1 : 2.2	22.5	1 : 3.87
배 래		15.0	1 : 1.60	14.5	1 : 1.2	19.0	1 : 1.1	13.0	1 : 1.3	19.5	1 : 1.15
수 구		11.5	1 : 1.69	11.0	1 : 1.59	13.0	1 : 1.46	12.0	1 : 1.0	13.0	1 : 1.5
결섵넓이		9.0	1 : 1.27	8.0	1 : 1.3	9.5	1 : 1.36	8.0	1 : 1.62	10.0	1 : 1.3
안섵넓이		5.5	1 : 1.63	4.5	1 : 1.37	5.0	1 : 1.9	5.0	1 : 1.5	5	1 : 2
깃 넓 이		6.8	1 : 1.23	6.5	1 : 1.77	7.5	1 : 1.5	6.5	1 : 1.6	7.8	1 : 1.56
끝 동		7.0	1 : 1.0	6.5	1 : 1.44	7.0	1 : 1.0	7.0	1 : 1.0	7	1 : 1.12
결마기 _上 _下		9, 16	上 : 下 = 1 : 1.7	9, 14	1 : 1.55			10, 9	1 : 1.1		
동 정				2.4							



(그림 14) 梁將軍 夫人 赤古里(1860)

〈표 16〉 양장군부인 저고리 비례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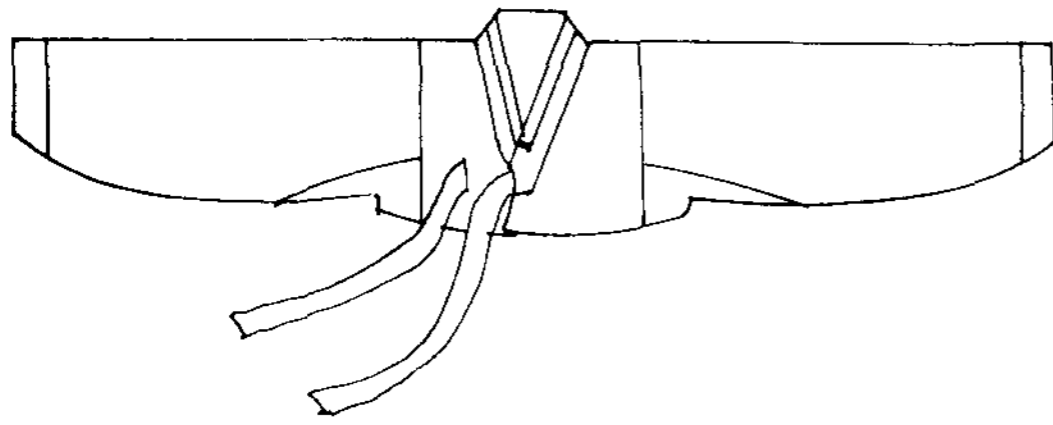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이	25	1 : 1.21
옆 길이	2	1 : 10.25
진 동	20.5	1 : 1.0
배 래	19.5	1 : 1.7
수 구	11.5	1 : 1.69
결 섵 넓 이	6	1 : 1.9
안 섵 넓 이	2.5	1 : 2.4
결 깃 길 이	20.3	
깃 넓 이	6	1 : 2
동 정	3	



(그림 15) 宋氏 赤古里(1879)

〈표 17〉 송씨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이	22	1 : 1.25
옆 길이	2	1 : 8.75
진 동	17.5	1 : 1.34
배 래	19	1 : 1.08
수 구	13	1 : 1.46
결 섵 넓 이	4	1 : 3.3
안 섵 넓 이	1.2	1 : 1.08
끝 동	3.8	1 : 1.18
깃 넓 이	3.2	1 : 2.46
동 정	1.3	



(그림 16) 閔氏 赤古里(1890)

〈표 18〉 민씨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21.5	1 : 1.1 1 : 18
옆 길 이	1	
진 동	18	1 : 1.5 1 : 1.54
배 래	18.5	
수 구	12	1 : 4 1 : 1.41
겉 셔 넓 이	4	
안 셔 넓 이	1	1 : 2.3 1 : 1
겉 깃 길 이	17	
깃 넓 이	3.5	
동 정	1.5	
끝 동	3.5	

〈표 19〉 18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표(전기)

비 례 부 위	평 균 비 례	황금비의 차이
옆길이 : 옷길이	1 : 4.14	+2.522
진 동 : 옷길이	1 : 1.089	-0.529
수 구 : 진 동	1 : 1.613	-0.005
수구 : 겉깃길이	1 : 1.784	+0.166
소매통 : 진 동	1 : 1.196	+0.422
옆길이 : 진 동	1 : 1.11	-0.508
깃넓이 : 동 정	1 : 2.70	+1.082
상셔 : 하셔넓이	1 : 1.478	-0.14

18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표(후기)

비 례 부 위	황 금 비 례	황금비의 차이
옆길이 : 옷길이	1 : 14.8	+13.182
진 동 : 옷길이	1 : 1.18	-0.438

수 구 : 진 동	1 : 1.515	-0.103
소매통 : 진 동	1 : 1.587	-0.031
옆길이 : 진 동	1 : 1.269	-0.349
동 정 : 깃넓이	1 : 2.253	+0.635
상셔 : 하셔넓이	1 : 1.986	+0.368

(6) 1900년대 저고리(초기)

이 시기는 1800년대 말에 저고리의 미의 기준이 파격적인 비례미를 이루는 변화의 무드가 열리면서 1900년 초로 이어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착시기라고 보겠다. 단순화 경향의 형태는 이때에 이르러 극소화 되었으며 이는 저고리가 기능적인 면보다 미적인 측면에 더욱 강조되는 점에서 미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라는 관점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이는 당시의 사회 현상의 반영으로 시대적 조류가 여성의 의복심리를 자극하여 노출의 미로 유도되었던 것으로도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저고리에서 느낄수 있는 균정과 안정의 미에서 맴돌던 미의 범주가 파격과 극단, 자극과 애로의 미로, 또는 불균형의 미로 이행된 시기로 보아야 되겠다. 아래의 비례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비례 지수보다 황금비와 훨씬 높은 차이를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정과 깃넓이가 가장 황금비에 가까운 비례에 있을 뿐 대부분이 두 비례부위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아주 큰 차이를 이루고 있다. 옷길 이와 옆길이는 차이가 큰 것중 대표되는 것으로 무려 1 : 22.56이라는 비례를 이룬다. 이는 극도로 짧았던 저고리와 옆길이를 상상할 수 있다. 역시 동시적으로 옆길기와 진동 역시 이와같은 비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소매통과 진동의 차이가 별로 없어 좁은 소매의 형태를 가상하게 되며, 여기서 이어지는 수구와 진동의 비례가 작은 것은 당시의 저고리가 얼마나 작고 꼭 끼는 형태였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같이 이 시기의 저고리는 비례가 유사길기와 극대비의 길이가 혼합되어 불균형의 미를 이루고 있던 시기라고 하겠다.

(7) 1900년대 저고리(중기)

저고리가 고구려 시대에 엉덩이에 이르던 길

이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짧아지는 추세로 단소화 되더니 조선 중기에 이르러 다시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것보다 새로운 형태를 갈망한 결과로 이 짧은 저고리도 신선감을 잃은 때문이라고 풀이될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욕 속에서 벗어나려던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일반 부녀자나 교육을 받은 여성이 노출이 심한 저고리를 기피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사회 참여의식이 고취되면서 활동하기 편리한 짧은 치마 차림을 하게 되니, 상하의 균형상 저고리의 길이가 자연 길어지게 되는 비례미의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저고리는 1700년대 이래 가장 황금비에 가까운 비례미를 이루는 시기라고 하겠다. 오히려 1970년 저고리보다 더욱 균형과 세련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초기에 높은 비례 차이를 이루던 옆길이와 진동이 황금비를 이루고 있어 이 부위가 처음으로 이루는 황금비례다. 이는 초기보다 저고리 길이가 길어진 때문이며, 여기에 진동과 옷길이 역시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비례미의 조화는, 1700년대에 옷길이, 진동, 수구의 나란한 세 수직선의 황금비례가 있었으나 조선중기는 길이를 3등분한 옷길이, 진동, 옆길이의 하나의 수직길이로 된 황금비례이다 이것은 바로 인체 모듈러의 황금척에서 손을 든 길이 : 신장 : 배꼽선의 3등분활의 황금비례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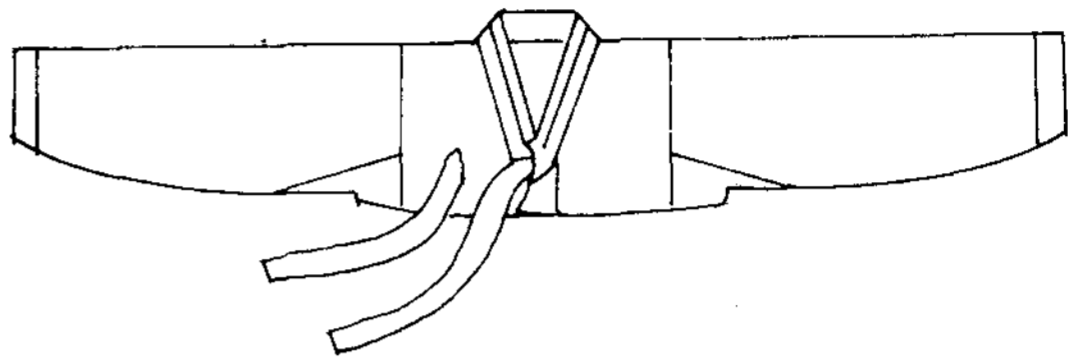
여기에 수구와 진동, 걸깃길이와 수구가 비례미에 근접한 치수로 되어 있어 가장 황금비례의 부위가 많은 저고리가 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중기의 저고리의 부위비례는 외형선 구성과, 내부선의 조화가 가장 황금비에 비례로 이루어진 저고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8) 1900년대 저고리(후기)

현재의 저고리는 중기에 약간 길어진 길이가 다시 짧아져서 1970년 중반에는 저고리 길이 22cm, 겨드랑 밑길이가 1.4cm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일반 부녀자의 저고리 치수이고, 일부 접대부등 특수층의 저고리는 옆길이가 거의 없을 정도이며 저고리 길이도 가슴을 덮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 이는 보편적인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로 기술해 들 뿐 저고리 평균 비례 치수에서는 제외하였다.

현대의 저고리는 비례로 볼 때 황금비례비와는 거리감이 있으나, 이러한 미적 기준치는 현대 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 미에 수용성의 가변적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림 17) 金氏 赤古里(1930)

<표 20> 김씨 저고리 비례 (단위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19.5	}	1 : 1.14
옆	길	이	1		1 : 17
진	동		17	}	1 : 1
배	래		17		1 : 1.41
수	구		12	}	1 : 1.41
걸	깃	길	이		17
깃	넓	이	3.5		1 : 1.4
끝	동		2.5		1 : 1.92
동	정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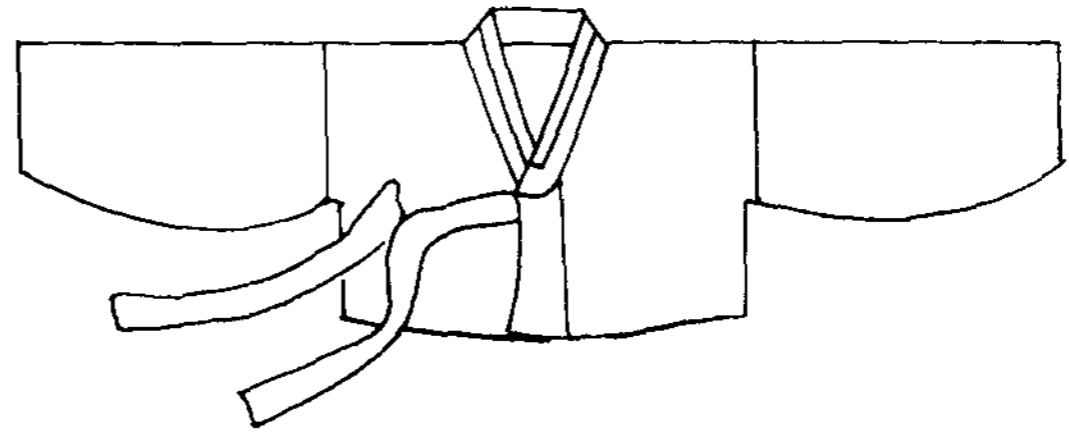


(그림 18) 尹氏 赤古里(1910)

9) 柳 亮 저 유길준 역, 황금분활, p.239.

〈표 21〉 송씨 저고리 비례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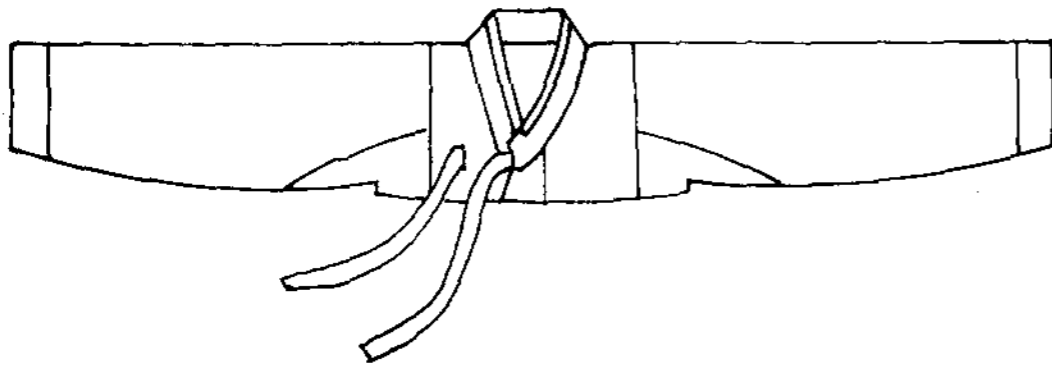
위 치	크기①	비 례	크기②	비 례
옷 길 이	21	1 : 1.23	18.5	1 : 1.15
옆 길 이	1		0.7	1 : 22.8
진 동	17	1 : 1	16	1 : 1.03
배 래	17	1 : 1.41	16.5	1 : 1.37
수 구	12	1 : 1.41	12	1 : 1.37
겉섶넓이	4	1 : 2.6	4	1 : 3
안섶넓이	1.5		1.5	1 : 2.6
겉깃길이	15.5	1 : 1	14.5	
깃 넓 이	3	1 : 1.7	3.5	1.1
끝 동	3	1 : 1.76	3.5	1 : 2.0
동 정	1.7		1.7	



(그림 21) 李氏 母親 赤古里(1930)

〈표 23〉 이씨 모친 저고리 비례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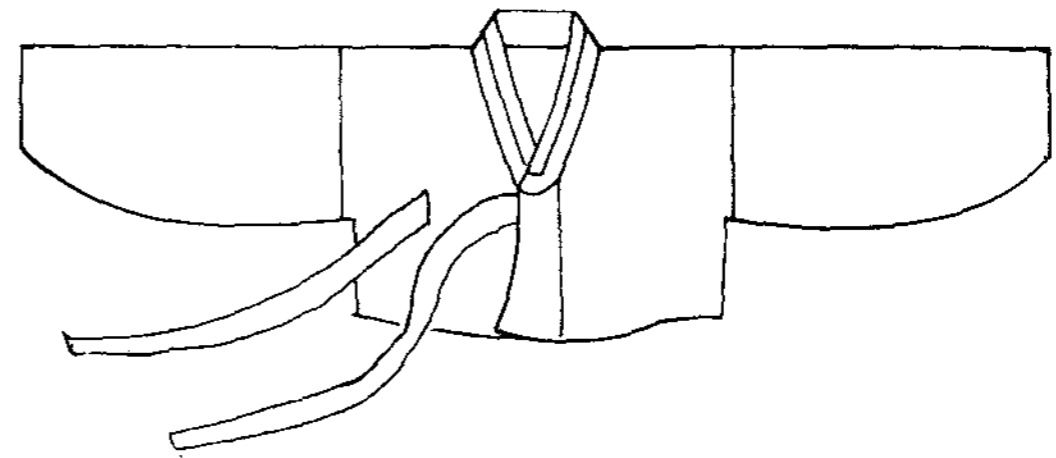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35	1 : 2.59
옆 길 이	13.5	1 : 1.40
진 동	19	1 : 1.55
배 래	22.5	1 : 1.55
수 구	14.5	1 : 1.55
겉 섶 넓 이	7	1 : 1.31
안 섶 넓 이	6.5	1 : 1.07
깃 넓 이	4.5	1 : 2.5
동 정	1.8	



(그림 20) 鄭氏 夫人 赤古里(1920)

〈표 22〉 정씨 저고리 비례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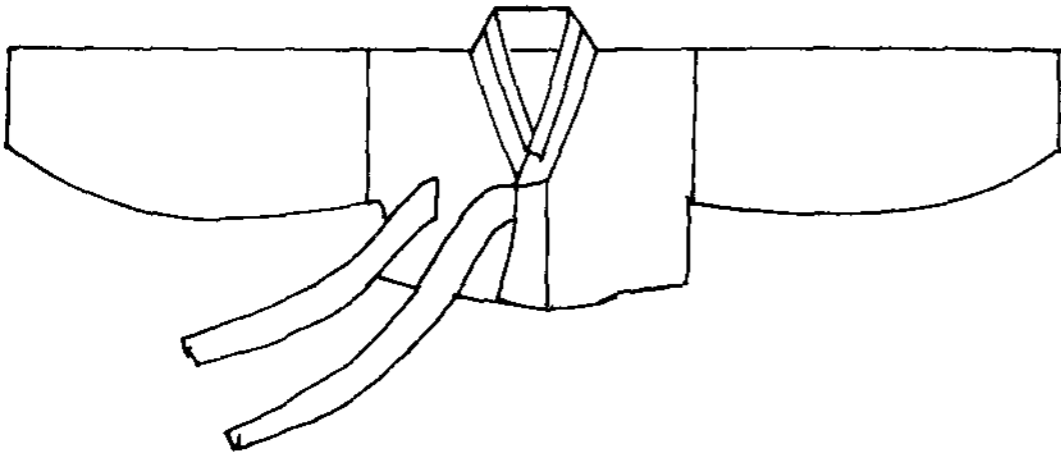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22	1 : 1.15
옆 길 이	0.8	1 : 23.75
진 동	19	1 : 1.0
겉 깃 길 이	18.5	1 : 1.05
배 래	19.5	1 : 1.34
수 구	14.5	1 : 2.75
겉 섶 넓 이	5.5	1 : 1.35
안 섶 넓 이	2	1 : 0.95
깃 넓 이	4	1 : 2.8
끝 동	4.2	
동 정	1.5	



(그림 22) 야두영씨 赤古里(1940)

〈표 24〉 야두영씨 저고리 비례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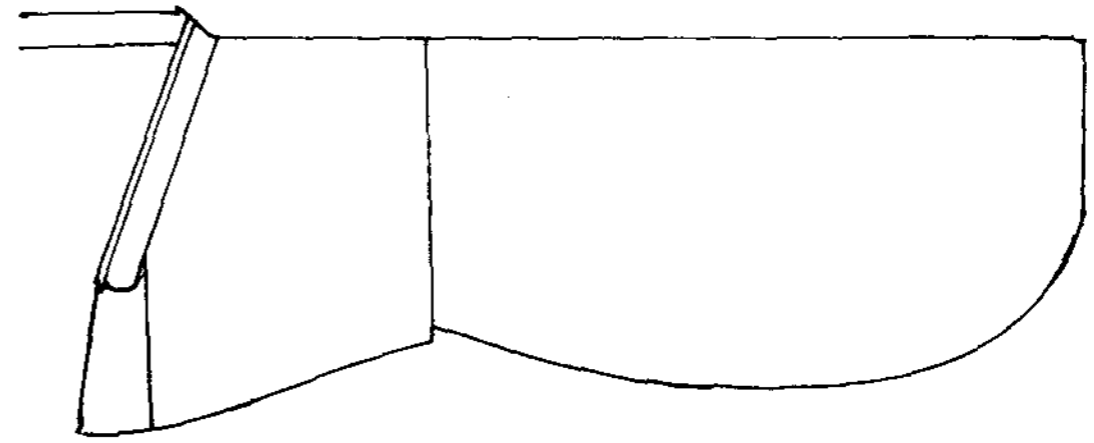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 이	37	1 : 2.8
옆 길 이	13	1 : 1.72
진 동	21.5	1 : 1.65
배 래	22	1 : 1.57
수 구	14	1 : 1.57
겉 섶 넓 이	7.5	1 : 1.5
안 섶 넓 이	5	1 : 1
깃 넓 이	5	1 : 1.5
동 정	2.2	1 : 2.27



(그림 23) 이창숙씨 赤古里(1950)

<표 25> 이창숙씨 저고리 비례 (단위 :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이	34.5	1 : 1.72
옆 길이	10	
진 동	20	1 : 2
배 래	20	1 : 1
수 구	13	1 : 1.53
겉 섹 넓 이	6	1 : 1.5
안 섹 넓 이	4	
겉 깃 길이	19	1 : 1.26
안 깃 길이	24	
깃 넓 이	3.5	1 : 2.34
동 정	1.5	



(그림 24) 金氏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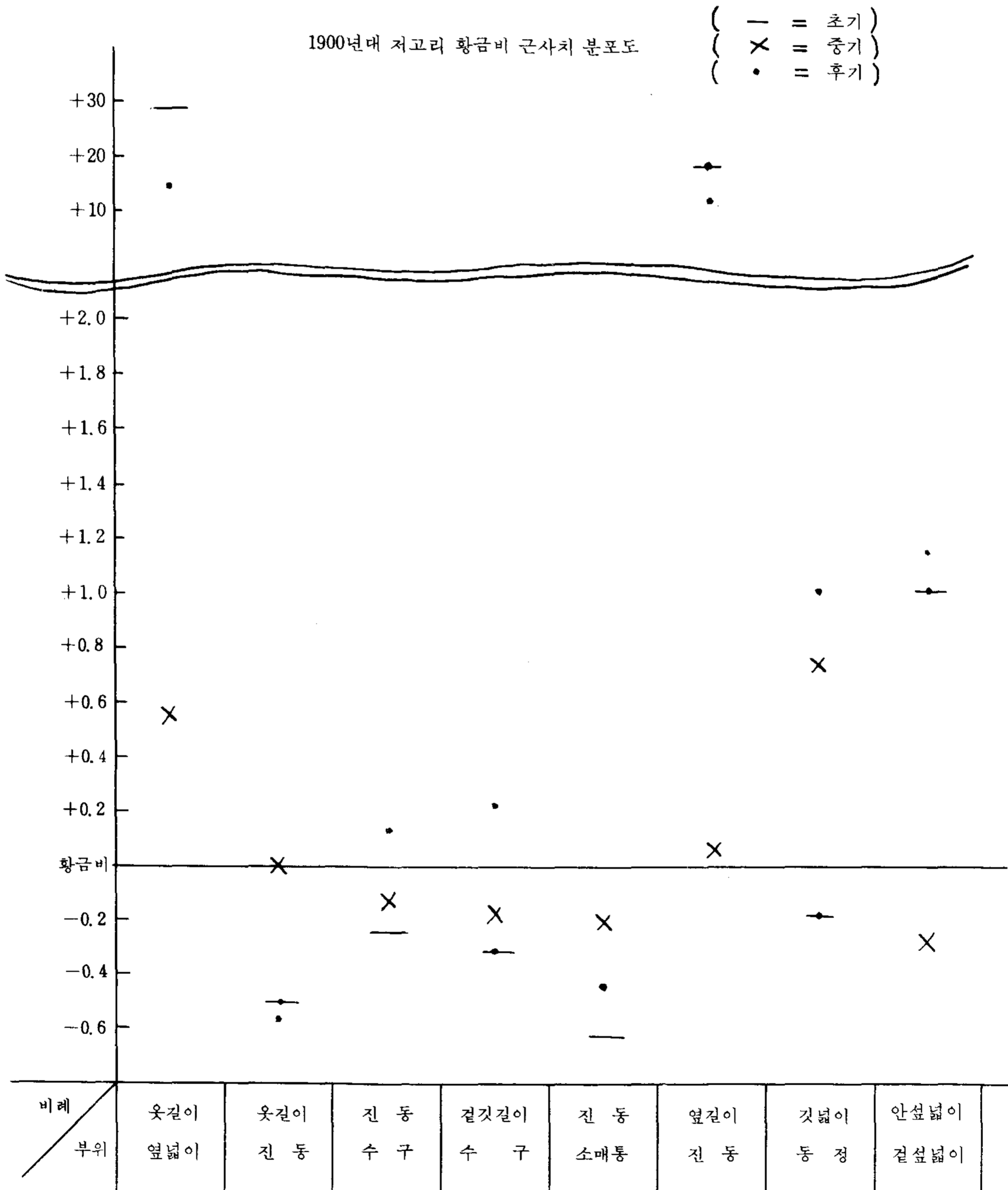
<표 26> 김씨 저고리 비례 (단위 : cm)

위 치	크 기	비 례
옷 길이	24	1 : 1.14
옆 길이	1.5	
진 동	21	1 : 16
소 매 통	25	1 : 14
수 구	12	1 : 1.1
섹 길이	10.5	1 : 2.0
섹 넓 이 상	4	1 : 1.14
섹 넓 이 하	5	1 : 2.6
깃 넓 이	3.5	1 : 1.25
동 정 넓 이	0.9	1 : 1.42
		1 : 3.88

<표 27> 1900년대 저고리의 황금비 비례표

1900년대 전기			1900년대 중기		1900년대 후기	
옆길이 : 옷길이	1 : 22.566	+20.948	1 : 2.169	+0.551	1 : 16	+14.382
진 동 : 옷길이	1 : 1.167	-0.451	1 : 1.663	+0.045	1 : 1.14	-0.478
수 구 : 진 동	1 : 1.375	-0.243	1 : 1.461	-0.157	1 : 1.75	+0.132
수구 : 겉깃길이	1 : 1.296	-0.322	1 : 1.423	-0.194	1 : 1.833	+0.215
소매통 : 진 동	1 : 1.014	-0.604	1 : 1.406	-0.211	1 : 1.19	-0.427
옆길이 : 진 동	1 : 20.137	+18.519	1 : 1.683	+0.065	1 : 14	+12.382
동 정 : 깃넓이	1 : 1.425	-0.193	1 : 2.37	+0.752	1 : 2.692	+1.074
안섹 : 겉섹넓이	1 : 2.65	+1.032	1 : 1.356	-0.261	1 : 2.77	+1.159
깃넓이 : 끝 동	1 : 1.125	-0.495				

〈표 32〉 1900년대 저고리 황금비 근사치 분포도



2) 부위별 변화와 황금비

(1) 저고리 길이와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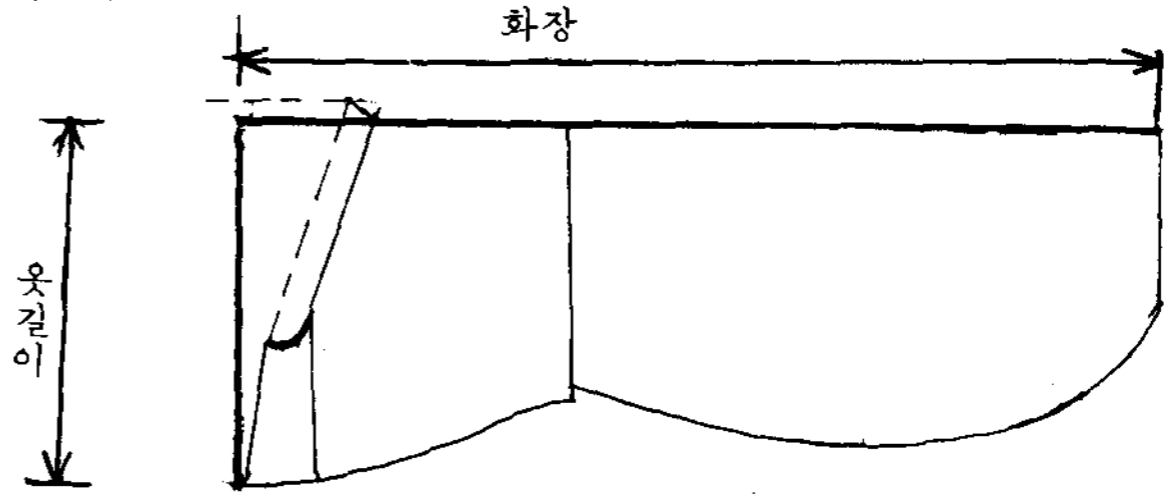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 가로와 세로로 연결되는 곳으로 이것을 완성하면 직사각형의 황금구형이 된다. 따라서 이 사각형의 틀은 저고리의 형태를 맞출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고리의 반쪽을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황금비의 관계를 알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음은 이러한 시도를 해 본 것으로 황금비에 접근하는 비례비인 루트 2($\sqrt{2}$), 루트 3($\sqrt{3}$), 루트 5($\sqrt{5}$)에 대입하였다. 이 결과 1700년대의 저고리가 저고리의 길이를 세로선으로 1로 하였을 때 가로선의 황금 비례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다음으로 1600년대의 저고리와 1500년대의 저고리가 $\sqrt{2}$ 구형에 들어 있다. 그 이외에도 1900년대 중기 저고리는 $\sqrt{3}$ 구형에 가까워 시대별로 찾아본 황금비의 관계에서 가장 비례미를 이루던 1700년대와 1900년대 중기의 저고리가 역시 길이와 화장으로 이루어지는 저고리의 외곽선에서 황금비례구성의 미적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옆길이와 옷길이

옷길이는 대개 진동과 옆길이와 밀접한 관계로 변화되는 부위다. 특히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 옆길이는 동시에 짧아지는 구성으로 변화의 동시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1600년대 이후 길이가 짧아지면서 옆길이가 작아지고 진동길이는 이보다 덜 변하기 때문에 이 비례폭이 커진다. 그러던 것이 1900년대 중기에 차이가 줄어든 것은 길이가 길어 지면서 옆길이가 길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1900년대 후기에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는 저고리

〈표 33〉 저고리, 화장의 황금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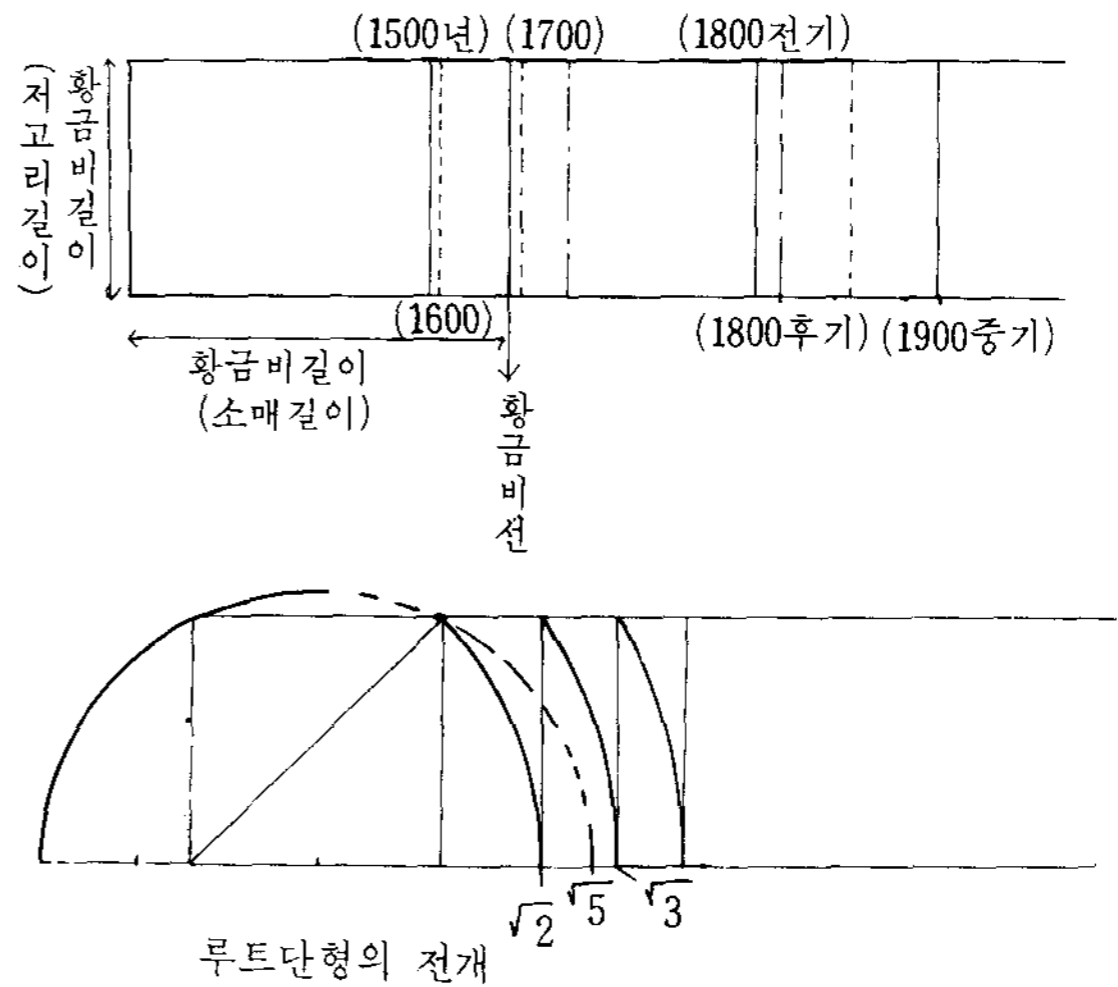
년 대	평 균 비 례	황금비의 차이
1500	1 : 1.28	-1.49
1600	1 : 1.32	-0.298
1700	1 : 1.66	+0.042
1800(전기)	1 : 2.66	+1.042
1800(후기)	1 : 3.22	+1.602
1900(초기)	1 : 3.34	+1.722
1900(중기)	1 : 1.86	+0.242
1900(후기)	1 : 2.8	+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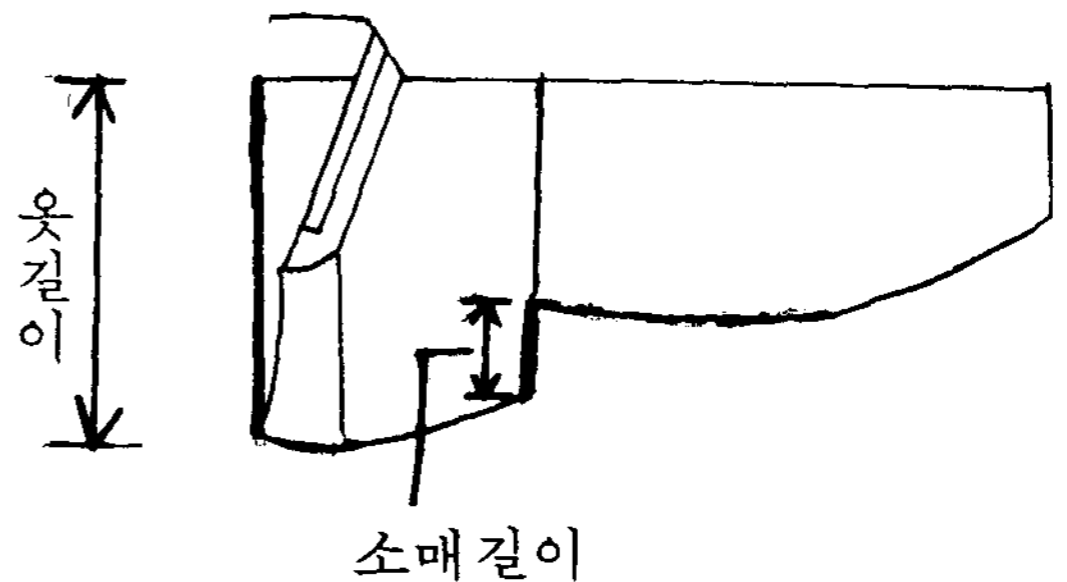
(그림 25) 저고리 길이, 화장의 위치

길이가 짧아진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결국 이 양자간에 비는 황금비와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저고리 : 화장의 비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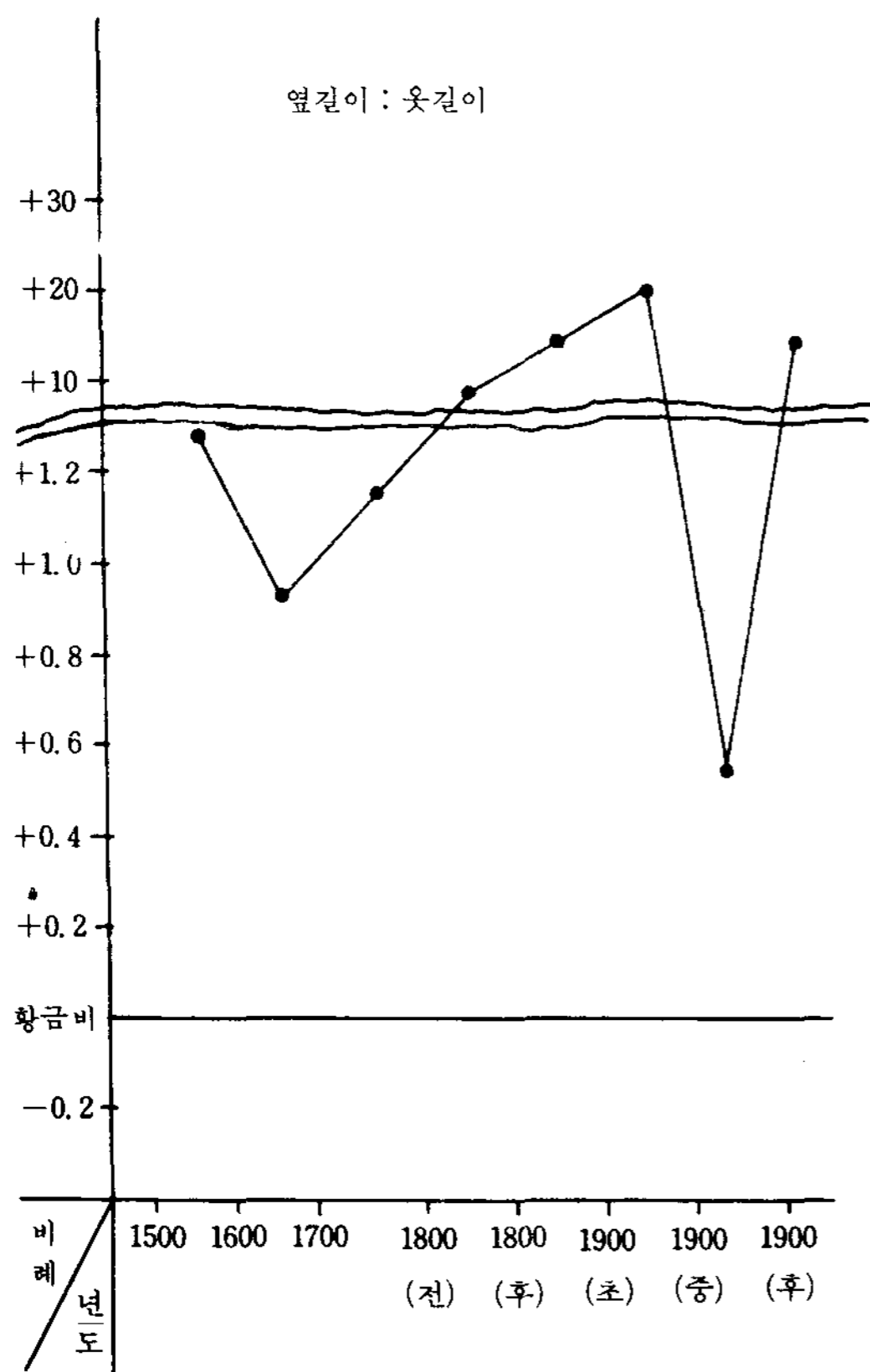


※ 정사각형으로 유사 황금비를 만들어 이 틀에 대입시킨 결과 각 년대에 따라 화장과 저고리 길이의 비례수치가 (표 34)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6) 옷길이, 옆길이부위

〈표 35〉 옆길이 : 옷길이의 황금비 관계



(3) 진동과 옷길이

진동과 옷길이는 저고리를 구성상으로 분해할 때에 두 부분으로 나뉘는 이음선이 되는 곳이다. 그런 관계로 길이는 동체의 길이가 되며, 진동은 소매의 수직 길이가 된다. 이런 위치상의 관계는 이 두 관계가 비례미를 이루는 시각적인 부위라고 하겠다. 여기서 옷길이가 변화되면서 진동도 동시에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기능상으로 진동의 길이는 팔둘레의 기본적인 넓이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옷길이는 가슴을 덮는 기능적인 목적이 따른다. 그런데서 이 두 관계는 옷길이가 짧아지면서 1700년대에 비례비가 황금비의 근사치에 이른다. 그러던 것이 저고리길이 더욱 짧아지면서 비례 차이는 벌어지지만 1900년대 중기에 다시 길어진 저고리 길이로 이들간의 비는 황금비를 이룬다.

(4) 진동과 수구

이 두 부위는 황금비의 근사치를 많이 유지한

곳임을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쪽이 소매의 달림선이면 한쪽은 소매의 끝부분인 손목쪽이기 때문에 길이의 장단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저고리나 조선초기에 저고리는 이 부위의 치수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때는 소매가 통수에 직선배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구가 작아지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기는 도표에서 1700년대로 이후에 1800년 초기는 황금비에 이르고 있다. 그후에 진동 길이가 작아지면서 황금비 선에서 멀어지지만 1900년대 중기에 다시 근접하다가 현대에 이르러 1:1.75의 비례를 보이고 있다.

(5) 겹깃길리와 수구

깃은 저고리에서 여밈의 역할을 하는 부위이면서 중심에 위치하여 의복의 균형을 이루는 곳으로 장식적인 미를 표현하는 유일한 사선이다. 이것은 진동의 길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진동과 관계가 있는 소매와도 관련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두 비례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황금비를 가장 많이 이루고 있음은 겹깃의 사선과 수구의 직선과 조화의 미가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6) 소매통과 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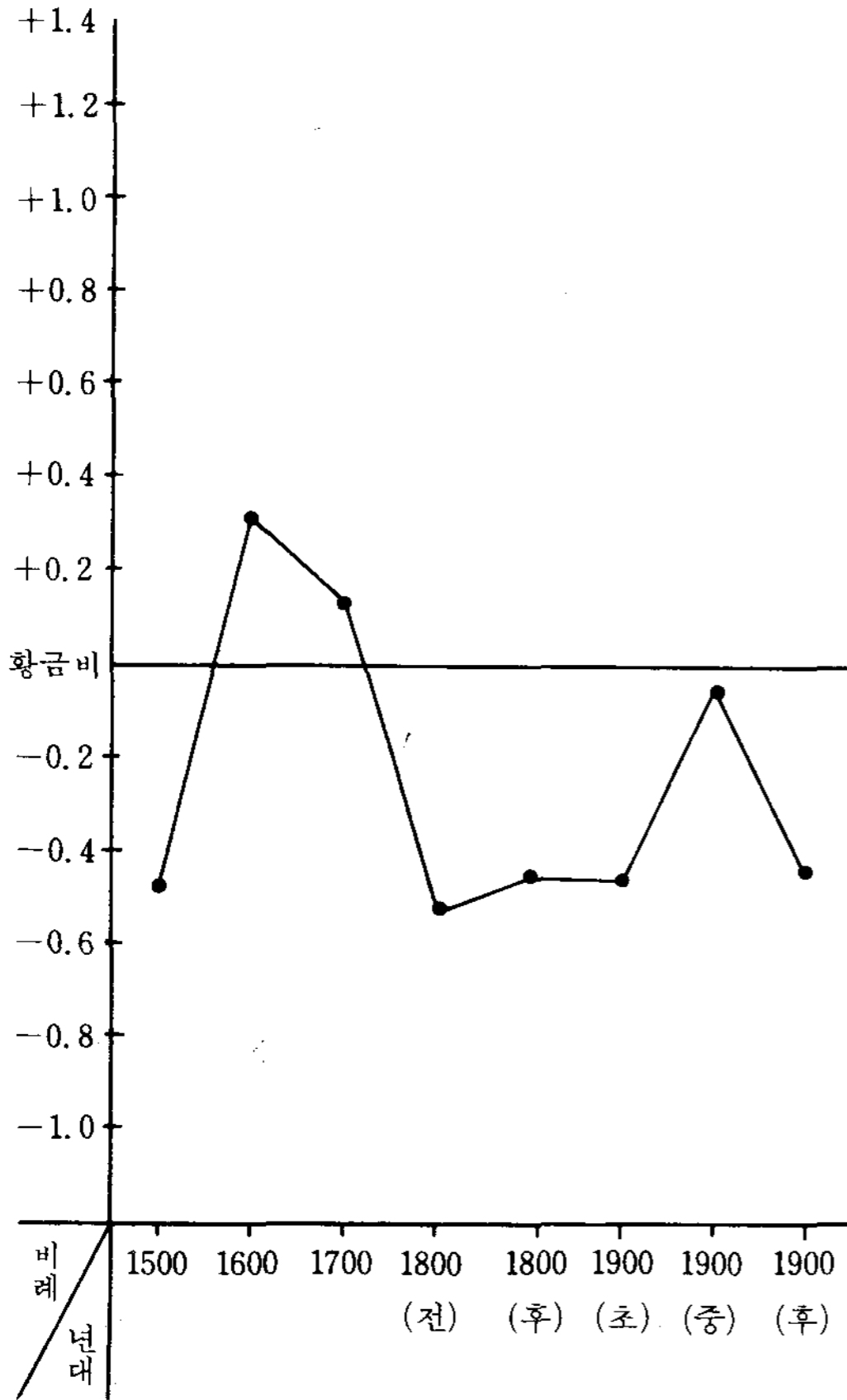
소매통은 배래의 형태와 관계가 있는데 저고리 소매가 애초에 아한대지방의 의복형인 착수형으로 통수였기 때문에 진동과 소매통, 수구가 같은 길이로 1600년대 까지 거의 이어져 왔다.¹⁰⁾ 그 이후에 미적 관점이 이 소매에 변형을 가져와 소매통이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진동과 소매통과의 비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800년대에 소매통이 작아진 것은 앞장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고, 또다시 폭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기에 좁아진 소매통 때문이다. 그러나 곡선 배래형의 소매통이 나오기 시작한 1800년대 후기는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

(7) 옆길리와 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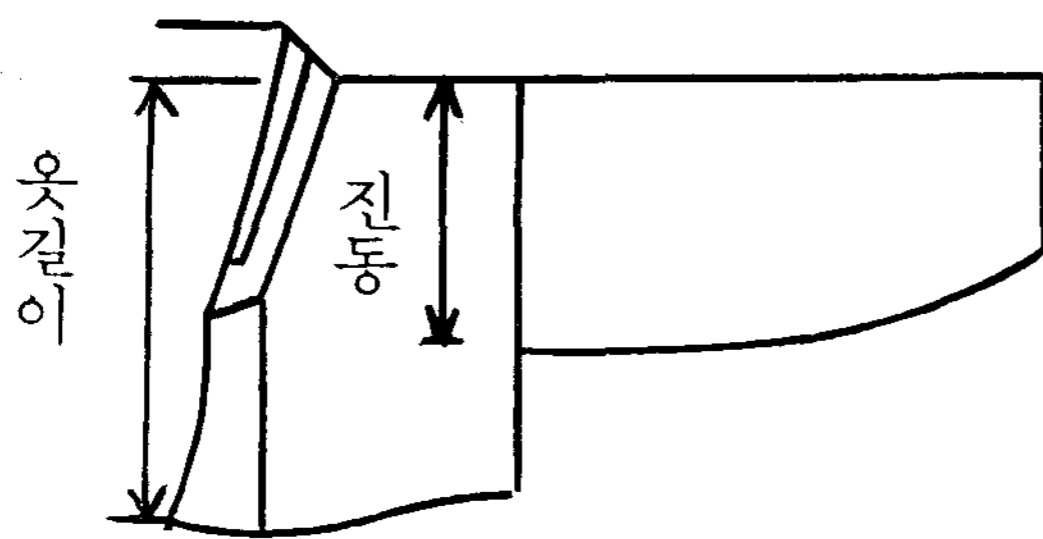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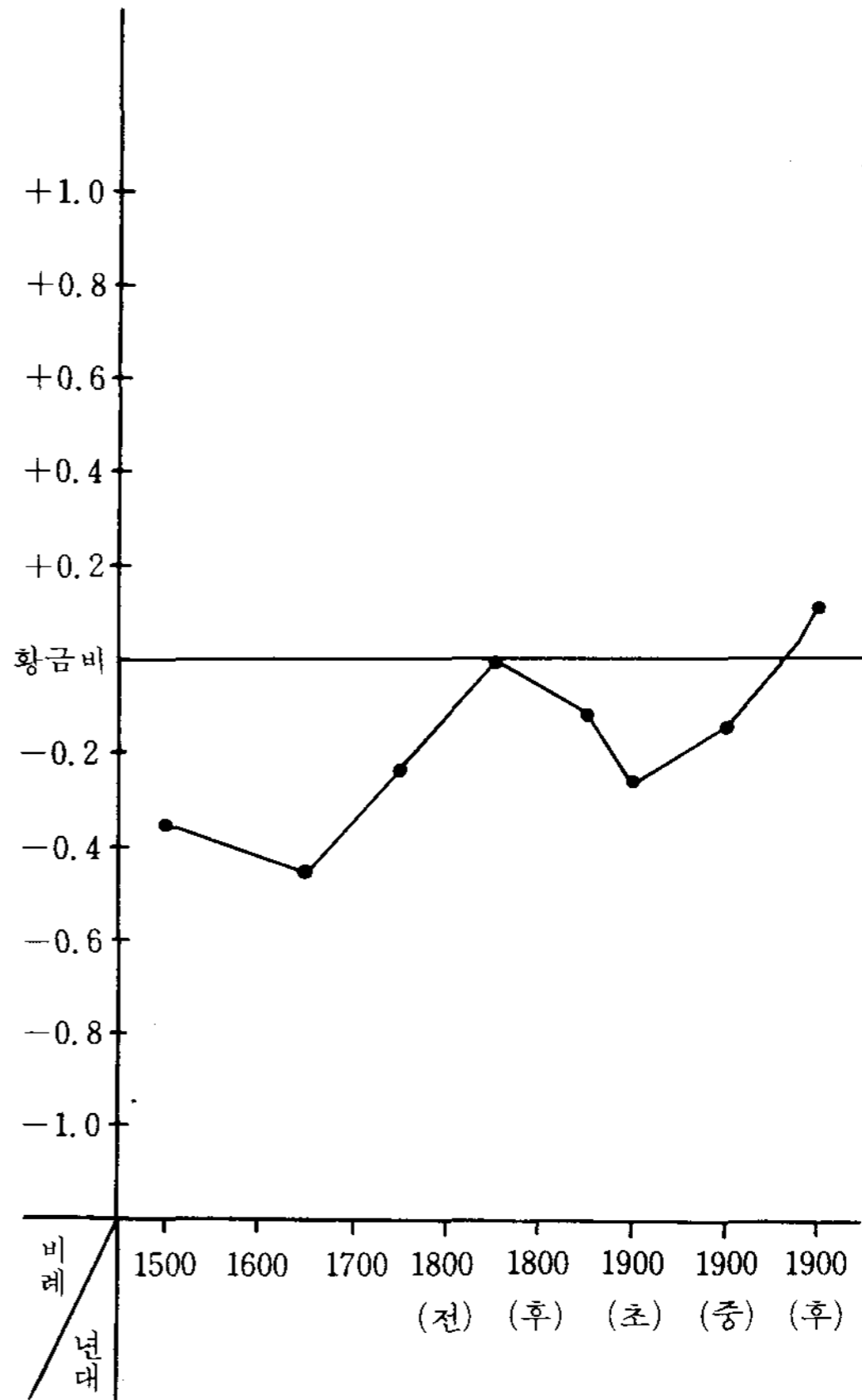
옆길리와 진동의 관계는 옷길리에 따라 옆길리가 변하는 것과 같이 동시에 변하는 성격이 있다. 옆길리가 진동과 비슷한 관계로 변하던 것이 1900년 초에 옆길리가 극도로 짧아지면서

10) 김영자, 조선시대 저고리 소매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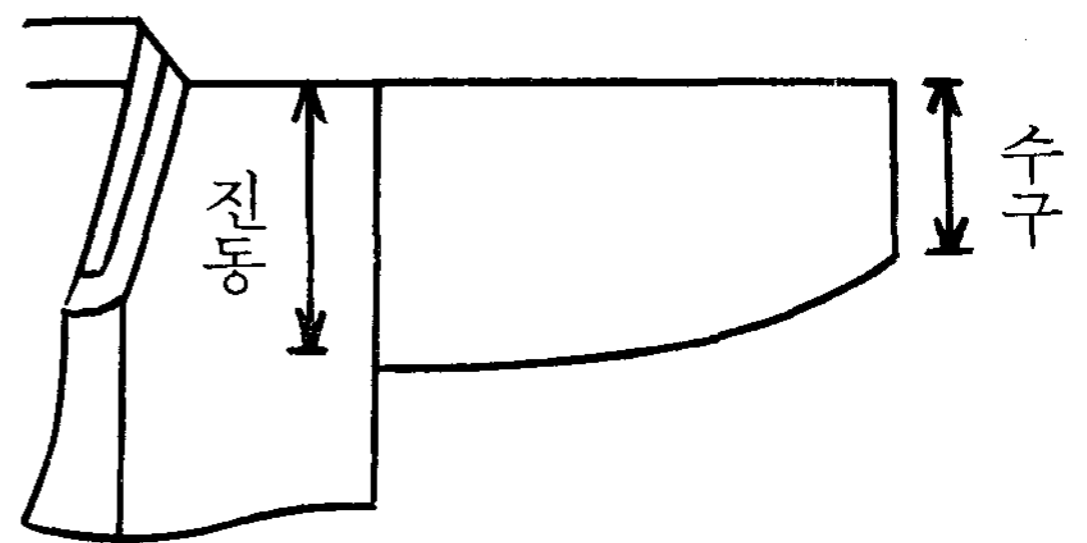
〈표36〉 진동 : 옷길이



〈표37〉 진동 : 수구



(그림27) 옷길이, 진동위치



(그림28) 진동, 수구위치

비례의 차이는 격차를 이룬다. 그러나 1900년대 중기에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면서 옆길이가 길어져 황금비를 이루는데 이것은 옷길이의 진동의 비례와 같은 양상이라고 하겠다.

(8) 동정과 깃 길이

동정과 깃은 한복 저고리의 미의 집점으로, 線으로 보면 유일한 사선이고, 색으로 보면 동정의 백색은 다른 바탕색과 조화되는 색으로 전체의 색을 순화시켜 주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미의 포인트라고 하겠다.¹¹⁾ 그러면서 이 두부분의 넓이는 상응하면서 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위가 황금비 분포에 가까웠던 시기는 1500년대와 1700년대, 1800년대 후기로 이는 다른 부위와는 별 상관없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그래프를 정리하면 옆길이의 옷길이는 1700년대가 황금비 근사치에, 진동과 옷길이는 1900년대 중기에, 진동과 수구가 1800년대에, 겹깃길이의 수구가 1500년대와 1600년대에, 소매통과 진동이 1800년대 후기에 옆길이의 진동이 1900년대 중기에 동정과 깃넓이가 1500년대와 1900년대 초기에 각각 황금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의 황금비 근사치는 1900년대 중기가 가장 이상적인 비례 분포로 되어 있으며 다음이 1700년대의 저고리로 나타났다.

3) 치마 저고리 착용시에 황금비 관계

여기서는 의복은 사람이 착용함과 더불어 미의 가치가 존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과거의 의복으로 실지 입어볼 수 없는 상태지만 이를 인체체형의 수치와 관련시켜 착용을 가상함으로서 대중의 비례미를 찾아보았다. 여기서 참고로한 인체치수는 우리나라의 여성체형을 연구조사 보고한 자료를 중심으로 여기에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시킨 비례를 산출하여 황금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검증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다음에 더욱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보충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대적인 거리감은 있으나 현재 한국인의 체형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앉은자세의 비례

저고리는 어깨에 걸쳐져 입기 때문에 견봉에서 발끝까지의 길이에 저고리 길이를 비례로 산출하여 이것이 황금비와 차이를 이루는 수치를 찾아보았다. 이 결과 표에서와 같이 비록 그림이지만 고구려 복식이 가장 황금비를 이루는데 이것은 당시에 저고리가 엉덩이를 넘는 긴 길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이 1500년대이고, 다음은 1600년대로 이어지는데 이는 저고리 길이가 짧던 1900년대 초기가 가장 큰 비례를 이루고 있다. 즉 저고리가 짧아지는 것과 비례 차이는 정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볼 때에 이 길이의 장단의 관계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일종의 미의 제치의 차이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의 치마 저고리가 큰 비례를 이루고 있으나 비교적 키가 작은 한국인의 체형으로 본다면 짧은 저고리로 인하여 치마의 길이를 강조해서 커 보이는 효과를 얻는다면 오히려 이 비례의 격차는 조화의미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2) 서있는 자세의 비례

온돌생활을 주로하던 우리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의복의 비례미도 입식의 상, 하의 비례에서 좌식의 앉은 길이를 중심으로 이행되었다고 보아진다. 현재 앉은 키의 평균을 83cm로 하여 이 길이에 저고리길이를 대입시켜 비례를 알아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황금비에 가까운 시기는 1600년대(53) 저고리였으며 그 다음이 1500년대이다. 그 이후는 입고에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는 것과 같이 비례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1900년대 중기에 다소 좁아지더니 후기에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시 비례미는 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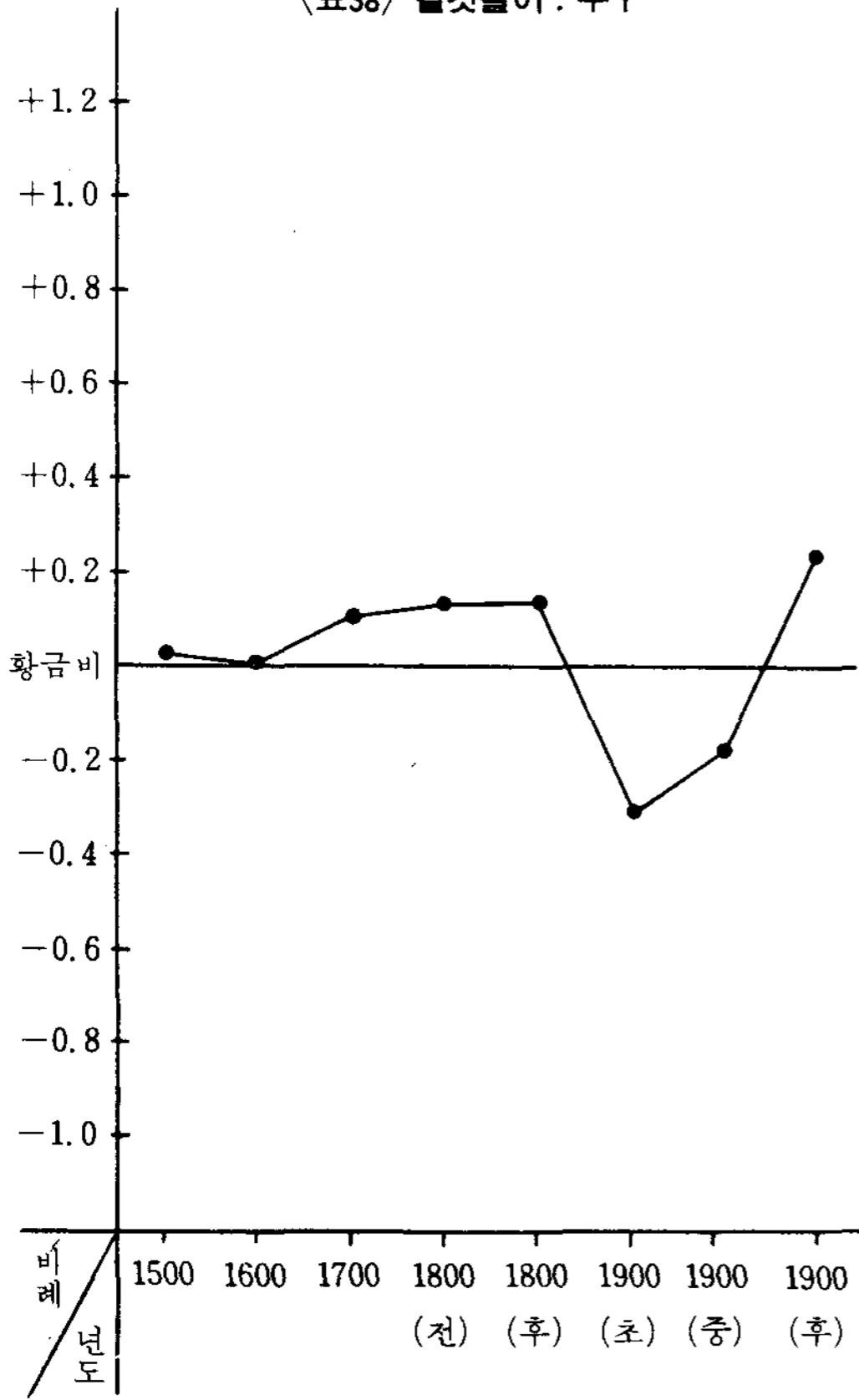
(3) 저고리와 허리선

허리선의 길이 산출은 여자의 견봉까지의 길이에서, 바닥으로부터 허리까지의(87.7) 치수를 뺀 37.5로 하였으며, 이 허리선 길이와 저고리 길이의 비례를 산출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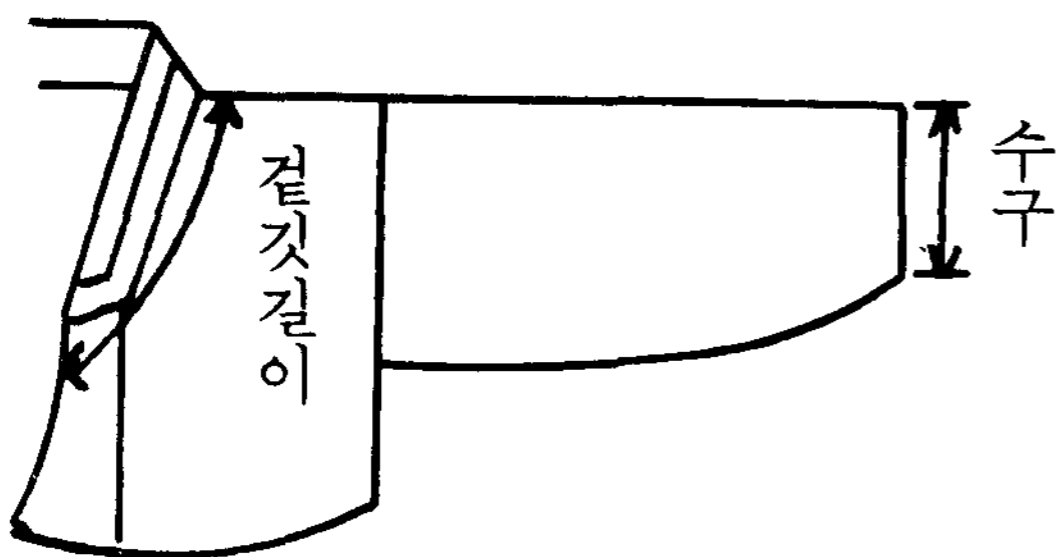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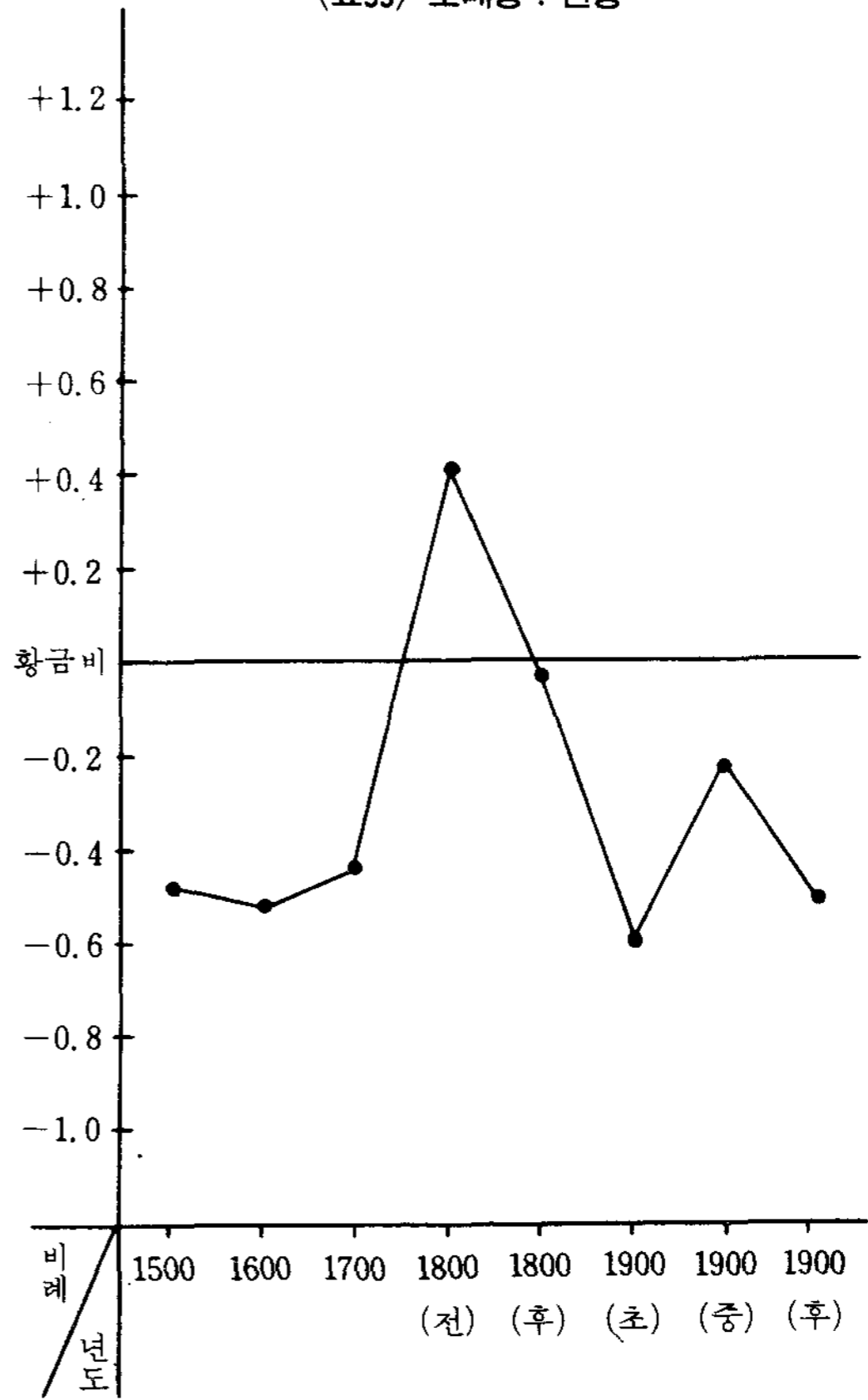
1800년대 전기가 가장 황금비에 가까우며 다음이 현대인 1900년대 후기이고 다시 1900년대

11) 김영자, 조선후기 여무복색의 미의식 연구, 동방학지 41집, 국학연구원,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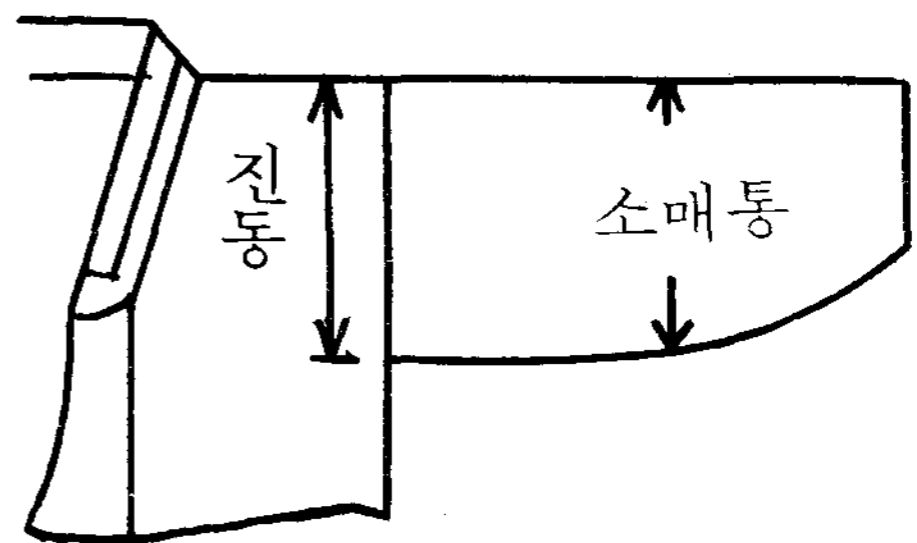
〈표38〉 겹깃길이 : 수구



〈표39〉 소매통 : 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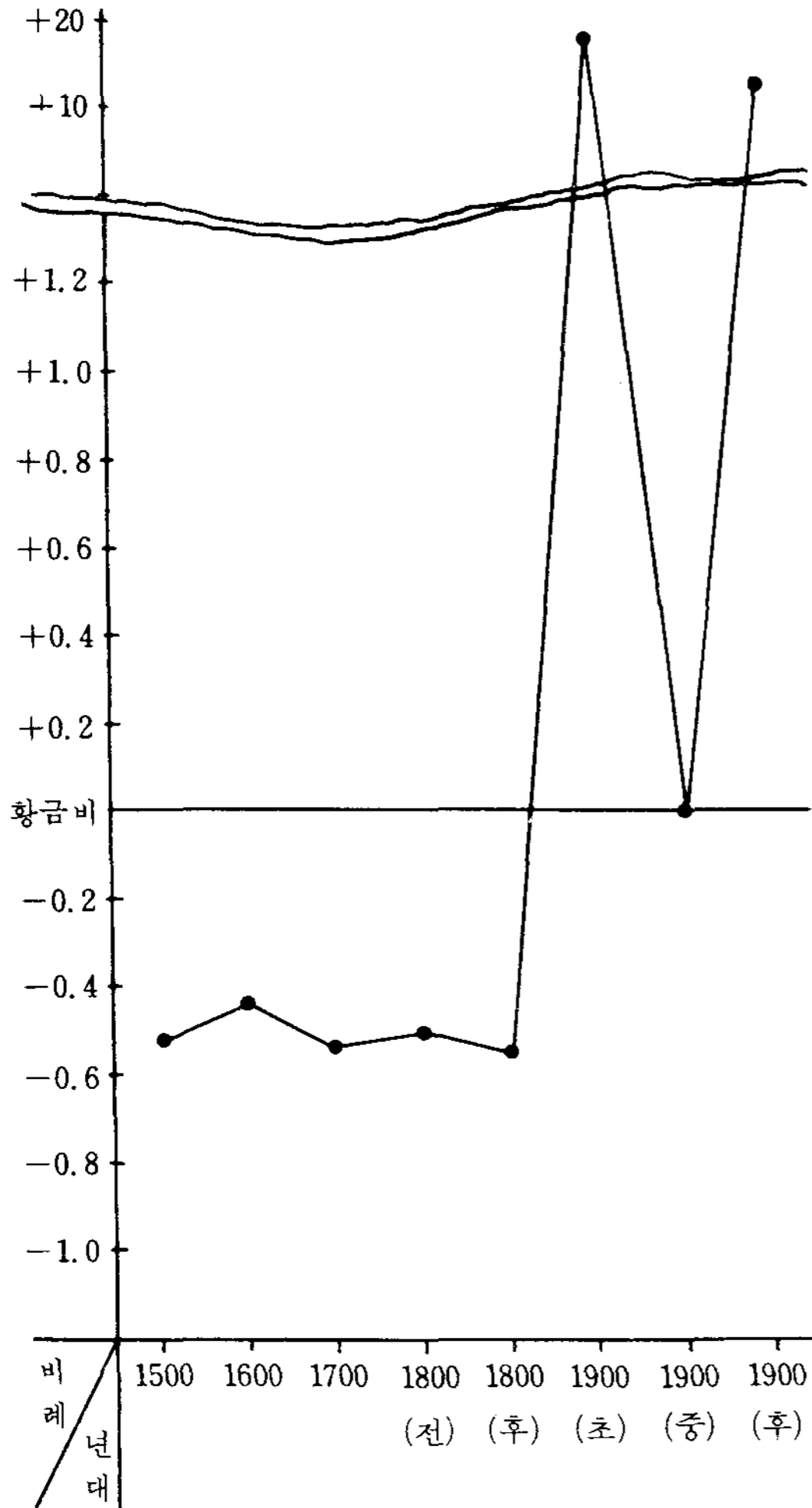


(그림29) 겹깃길이 : 수구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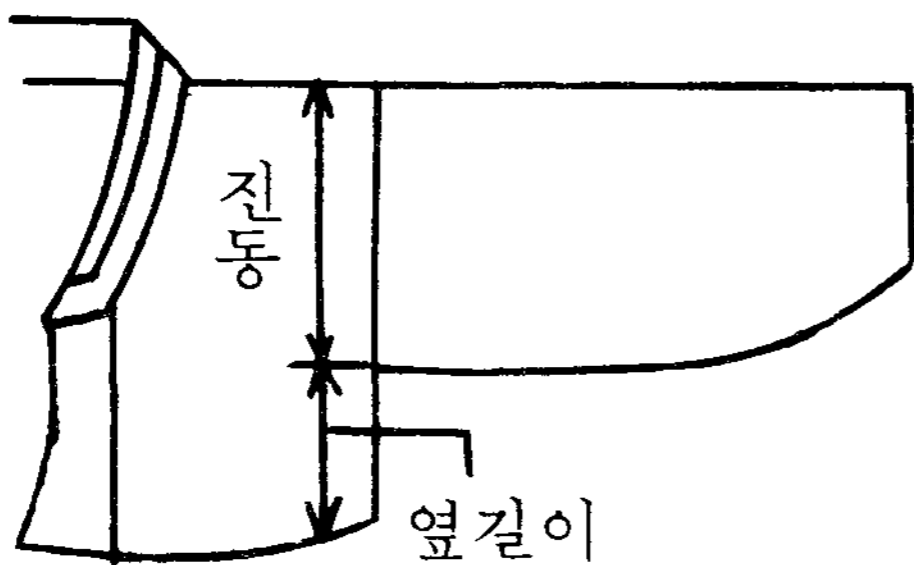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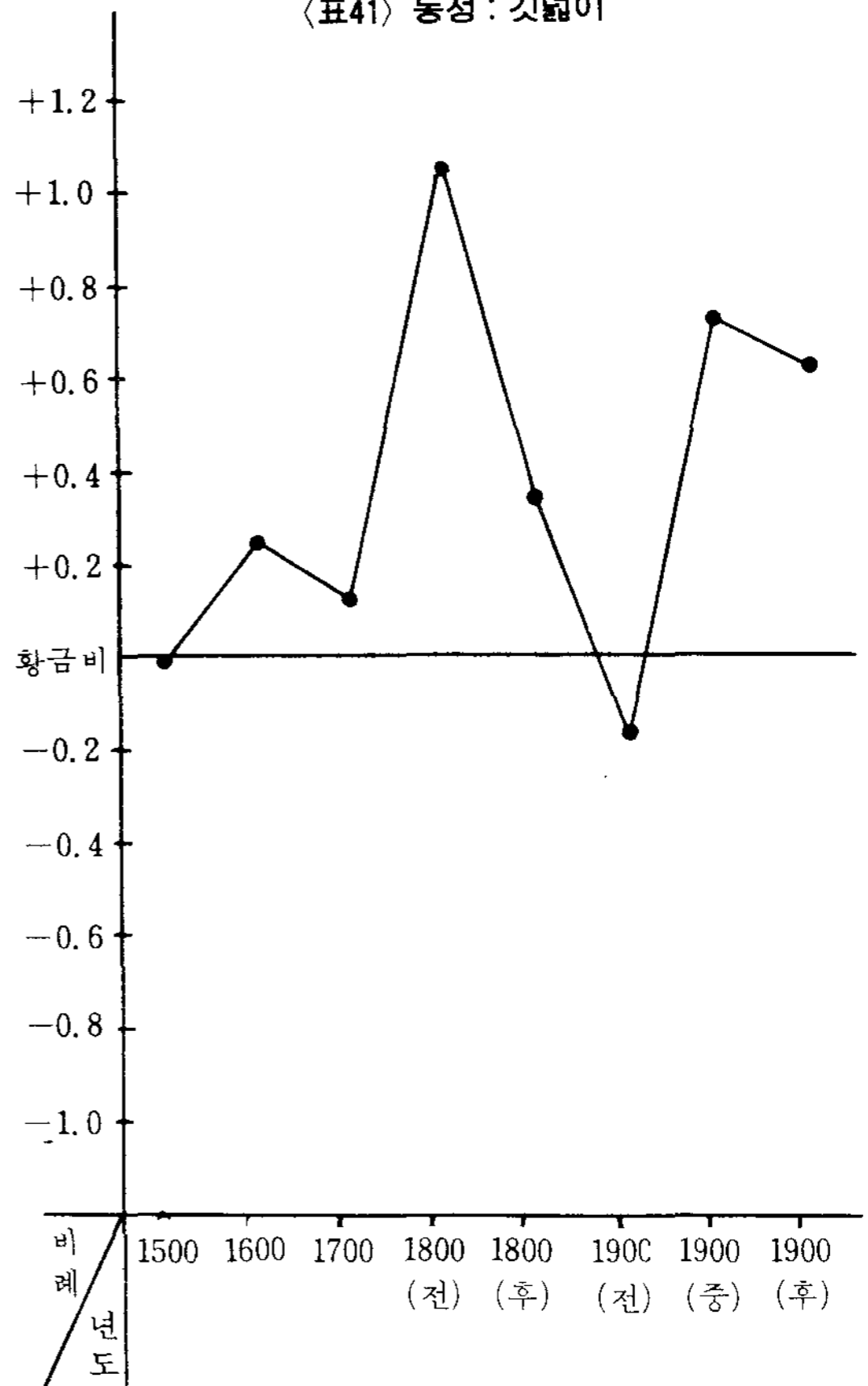


(그림30) 진동, 소매통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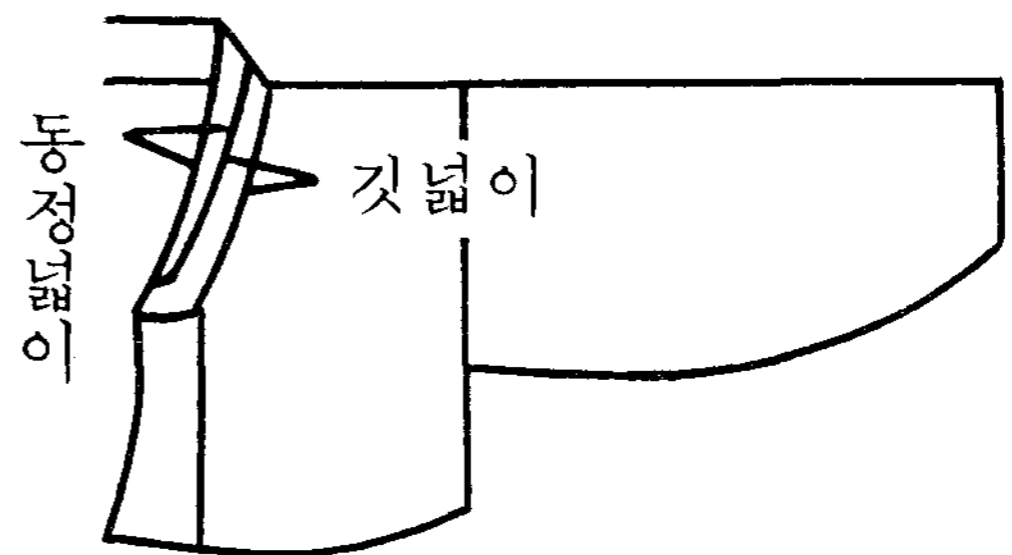
〈표40〉 옆길이 : 진동



〈표41〉 동정 : 깃넓이



(그림31) 진동, 옆길이 위치



(그림32) 깃넓이, 동정 위치

초기와 1800년대 후기로 모두가 저고리 길이가 짧은 시기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대의 저고리 길이가 허리띠를 매었을 때 저고리의 길이와 가장 아름다운 비례미를 이루고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이는 요즈음 무용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짧은 저고리의 아래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춤을 추는 무용수의 한복에서 이 두 선의 분할로 조화된 미를 느낀다. 물론 개인의 미적 감각이 문제되겠지만 여기에 나타난 황금비에 효과도 있으리라고 본다.

(4) 저고리 길이와 장지의 길이

여기서는 장지의 길이와 저고리 길이와의 비례미를 산출하려고 한다. 이는 저고리를 입었을 때 소매가 아래로 내려와 치마의 길이를 분할하는 역할을 할뿐더러 저고리길이의 도련인 횡선과는 시각적인 분할선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먼저 저고리의 길이 선이

눈에 들어오고 다음은 허리선이고, 그 다음에 소매의 길이 선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의 비례를 알아 보므로 한복 전체의 가로선 분할의 비례미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가장 황금비에 가까운 시기는 1900년대 중기로, 다음은 1700년대 저고리이며 반면에 1800년대 후기와 1900년대 초기가 가장 먼 비례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역시 저고리 길이가 짧았던 관계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저고리와 다른 부위와의 관계는 저고리 자체의 비례미와 비교하였을 때와 비슷한 황금비 관계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다. 치마와 저고리에서는 고구려 시대가, 좌고의 상태에서는 1600년대, 허리선과는 1800년대 전기가, 황금비에 가까운 것이었고 현대의 저고리는 허리와의 비례미를 이루고 있으며 장지와는 1900년대로 나타났다.

〈표 42〉 치마 저고리 착용시 황금비의 상관 관계

년 대	저고리 평균길이	立高 비례	황금비레 차이	坐高 비례	황금비레 차이
5~6세기		1 : 1.62	+0.002	1 : 1.06	+0.555
1500년대	56.5cm	1 : 2.212	+0.5943	1 : 1.469	-0.148
1600년대	53cm	1 : 2.362	+0.744	1 : 1.566	-0.051
1700년대	42.9cm	1 : 2.918	+1.300	1 : 1.934	+0.316
1800년대(전기)	25.66cm	1 : 4.879	+3.261	1 : 3.234	+1.616
1900년대(후기)	21.87cm	1 : 5.724	+4.106	1 : 3.795	+2.177
1900년초기	19.8cm	1 : 6.323	+4.705	1 : 4.191	+2.573
1900년중기	35.15cm	1 : 3.561	+1.943	1 : 2.361	+0.743
1900년후기	23.5cm	1 : 5.327	+3.708	1 : 3.531	+1.913

☆ 저고리 · 평균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로 하였음. 김영자 “조선시대저고리소매연구”, 한국여성문제연구소 효성여자대학교

〈표 43〉 저고리 길이와 허리선, 장지와 황금비 상관 관계

년 대	저고리/장지	저고리/허리선
5~6세기	1 : 0.075	
1500년대	1 : 1.017	1.494 : 1
1600년대	1 : 1.086	1.402 : 1
1700년대	1 : 1.34	1.134 : 1
1800년대전기	1 : 2.240	0.678 : 1
1800년대후기	1 : 2.629	1 : 1.728
1900년대초기	1 : 2.904	0.523 : 1
1900년대중기	1 : 1.635	0.929 : 1
1900년대후기	1 : 2.446	1 : 1.595

Ⅲ. 결 어

가장 아름다운 비례미로 전하여 지고 있으며 실지 디자인의 원리로 응용되고 있는 황금비(1 : 1.618)에 관하여 우리나라 한복 특히 치마와 저고리에 대하여 적용시켜 보았다.

1. 고구려 벽화에 나와있는 상고시대 치마 저고리에서부터 1500년대의 치마 저고리에 이르기까지는 저고리의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가므로 대체적으로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

2.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생활양식이 평상생활이었으므로 이런 비례비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이나 조선조 성종 시대 이후로 온돌생활이 시작하면서부터 좌거생활로 이행하여 저고리는 점차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런 관계로 서 있을 때의 의복의 비례미가 앉은 자세의 미로 이행되었다.

3. 그러면서도 저고리 각 부위의 황금비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아울러 이 시대부터 복식 유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측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1500년대에는 쇄의 위와 아래, 깃과 동정이, 1600년대에는 걸깃길이와 수구, 깃넓이와 동정안쇠와 걸쇠이, 1700년대에는 깃의 넓이와 쇄의 넓이, 깃넓이와 동정이, 1800년대에는 진동과 수구, 걸깃길이와 수구, 상쇠넓이와 하쇠넓이가 1900년대에는 중기에 옷길이와 진동, 옆길이와 진동이 각각 황금비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저고리는 치마와 더불어 입혀지는 것이므로 저고리와 치마와의 황금비의 관계는 상고시대의 신장이 오늘날 통계로 나와있는 신장과 같았다는 전제로 볼 때에 서있는 상태에 치마 저고리 비례는 고구려 시대에, 좌고 상태에서는 1600년대에, 허리선과 저고리는 1800년대 전기와 현대인 1900년대 후기, 장지와의 비는 1700

년대가 각각 황금비에 근사 비례였다.

6. 한복은 상고에서 현대까지 구성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이것이 시대에 따라 변동하면서 유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주찰해 본 결과 그 증언은 침모와 사회문화적 사조의 흐름에서 파생된 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궁중의 침모, 상의원 나인들은 중인 출신이며 이들은 서울 우대(優待) 사람으로 그 주변에 의료(衣料)의 선전 상인과 유행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생과 좁은 거리에서 살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복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추상해 보았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저고리의 형태가 많이 변한 1800년대의 시대적 여건에서 나타났다고 하겠다.

7. 여기서 분석한 이 황금비는 비례미의 원리로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여겨지는 것이나 반드시 이에 준한 것만이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시대에 따라 미적 개념의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가치 기준도 달라진다고 보겠다. 그러나 황금비례는 일반적으로 미를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을 띄고 있는 특성으로 이상의 고찰에서 저고리의 비례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1984, 7, 11,)

<韓國服飾學會, 服飾, 第8號, 1984. 12>

12) 국민 표준체위 조사 연구 보고서, 과학기술원, 1980.

13) 여자 견봉(바닥에서 어깨까지의 길이) 높이는 25~29세가 125.2cm로 이 길이는 옷을 입었을때에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길이가 된다.

14) 한국 미술전집 4집, 동화출판사, 1974.

고구려 복식의 견봉 높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현대 여성의 견봉 높이가 125.2cm인 경우 앉은 키는 1:1.508의 비율이다. 이때에 그림에서 견봉 높이를 재고 여기에 이 비례를 적용하여 앉은 키를 산출하였으며, 다른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환산하였다.